

평신도

그립습니다.
고맙습니다.



- 인사 인사말
- 특집 김수환 추기경과 나
- 만남 평신도가 만난 평신도 평신도가 된다
- 나 **눔** 신앙 선조를 움직인 한 권의 책 신앙 선조의 불꽃 같은 삶 나의 신앙 선조
- 이야기 사도직 평신도의 꿈과 희망 주보성인과 나

- 배움 작가를 감동시킨 작품 평신도 양서
- 소식 교구평협 · 회원단체

희년의 정신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2019년 봄
계간 63호

평신도

CONTENTS

인사

02 인사말 / 손희송 주교

특집

04 김수환 추기경과 나 / 김성수, 유인태, 이현구

만남

10 평신도가 만난 평신도 / 나권일

16 평신도가 된다 / 김주완

나눔

21 신앙 선조를 움직인 한 권의 책 / 송란희

24 신앙 선조의 불꽃 같은 삶 / 송란희

27 나의 신앙 선조 / 최은숙

이야기

31 사도직 평신도의 꿈과 희망 / 정태경

34 후보성인과 나 / 이상요

배움

37 작가를 감동시킨 작품 / 심현정

40 평신도 양서 / 김선동

소식

42 교구평협 · 회원단체 / 염지유

발행인 손병선 아우구스티노
담당사제 조성풍 아우구스티노
발행처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편집장 김문태 힐라리오
편집위원 김선동 루카, 김주완 라우렌시오,
 나권일 토마스, 서상덕 스테파노,
 송란희 가릴라(가나다 순)
제호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
표지 〈김수환 추기경 바보야〉
 'All for you', 선종훈 프란젤리코 작
디자인 · 인쇄 가톨릭출판사

인사말

미사 안에서
하나 되는 신앙인들

손희송 베네딕도
서울대교구 총대리 주교



우리 사회에는 자신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는 경향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어둠이 깊어지는 세상에서 그리스도 신자들이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마태 5,14).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핵심계명(마태 22,37-40)에 따라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곧 온 마음과 목숨과 정신을 다해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면,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인 각자는 자신의 위치에서 빛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서 빛의 역할을 하기에는 세상의 저항이 너무 거셉니다. 등불 하나가 주위의 어둠을 밝힐 수는 있지만, 바람이 거세게 불면 꺼져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서로 힘을 합쳐야 합니다. 신앙인 한 사람은 작은 등불의 역할을 하지만, 신앙인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등대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의 일치, 신자들 간의 일치

교회가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든든한 등대가 되려면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합하고 일치해야 합니다. 교회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이지만, 한 신앙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

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미사입니다.

미사 안에서는 주님과 의 일치, 그리고 신자들 간의 일치가 드러나고 깊어집니다. 말씀 전례 중에 성경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는 동시에 신자들 서로간의 일치를 이룹니다. 또한 2천 년간 지속된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고, 신자들 서로간의 일치를 이룹니다. 교회가 2천 년간 지켜온 신앙이기에, 시간적으로는 우리에게 앞선 모든 신자들과 일치하는 것이고, 공간적으로는 전 세계에 퍼져있는 신자들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성찬 전례 중에 성체를 영하면서 그리스도와 의 일치, 또한 함께 성체를 영하는 신자들 간의 일치를 이룹니다.

미사에 참여하여 주님과 일치를 이룬 사람이라면, 그 주님의 뜻에 응답하여 일치와 화합의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은 최후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기를(요한 17,11), 제자들의 말을 듣고 당신을 믿게 될 이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시기를 성부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요한 17,21). 예수님의 염원에 따라 신자들 모두는 교회가 일치의 표징이며 도구가 되도록, 그래서 죄로 인해 다툼과 분열로 얼

룩진 세상 안에서 빛이 되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신앙인들이 일치와 화합에 어긋나는 ‘육의 행실’, 즉 ‘적개심, 분쟁, 시기, 격분,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갈라 5,20)를 일삼는다면, 하느님과 교회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걸림돌이 됩니다.

유혹의 속삭임과 성령의 목소리

때로는 교회 구성원의 약점과 허물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여겨질 때 실망하거나 비난을 하면서 교회를 등지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어느 중년의 가장도 한때 유혹에 시달렸지만, 다행히 미사 중에 성령의 도움으로 그 위기를 극복했다고 합니다.

“세례를 받고 2년쯤이었는데, 세례를 받을 당시에는 보이지 않았던 교회에 대한 불만들이 신앙에 조금씩 눈을 뜨게 되면서 보이기 시작했다. 주위의 천주교 신자들의 모습, 공동체의 불합리한 행태, 성경 말씀과는 너무 다른 교회 현실 등을 보면서 조금씩 실망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견디기가 힘들어졌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나의 인내심이 무너진 것은 어떤 신부님에게서 보이는 이해하기 힘든 모습 때문이었다.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는 천주교를 떠나야겠다고 마음을 굳혔다. 그런데 막상 떠난다고 하니, 어디로 갈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가 막막했다. 그 순간 이럴 때일수록 하느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회의 모습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하느님만은 완전한 분이시니, 이 문제를 놓고 하느님과 의논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느낀 것이다. 그래서 떠난다는 결정을 잠시 보류해 두고 주일 미사에 참여하던 어느 날, 영성체를 하고 돌아오는데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내가 이제 내 교회의 단점을 이야기하느냐? 너를 여기까지 성장시켜 준 것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 교회

의 단점을 너에게 보여준 것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모두 내가 한 일이다. 너에게 그것을 보여준 이유는 내 교회를 욕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일하라는 뜻이다.’ 나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았다.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 교회를 새롭게 하려고 나를 부르고 계셨구나. 그런 순간에 오히려 욕하면서 떠나간다면, 그것은 하느님께서 뜻하신 바가 아닐 것이다.’ 그날부터 교회의 비판이나, 떠난다는 생각은 다 집어치우고, 내가 이런 교회를 위해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생각했다. 교회의 단점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였기 때문이다.”

악의 세력은 항상 그럴듯한 핑계를 대면서 우리를 주님과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교회 안에서 잘못된 점이 보이면 악의 세력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런 교회에서 무엇을 더 바랄 것이 있느냐? 희망이 없는 교회에서 더 이상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말고 떠나가서 편하게 살아라.” 이것은 분명 유혹의 속삭임입니다. 반면에 ‘나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나를 통해서도 교회가 새롭게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성령의 목소리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인간들의 집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교회를 거듭 새롭게,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설사 교회의 일부 구성원, 때로는 지도자들이 잘못하더라도 성령의 은혜로 다른 지체가 거룩하게 되어 교회가 새롭게 됩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서는 당신 교회가 일치와 화합을 이루기를 원하시면서 은총으로 도와 주십니다. 신앙인은 그 은총에 힘입어서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유혹의 목소리를 거부하고 일치와 화합의 길을 가야 합니다.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랑 안에서 서로 일치하고 화합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갈등과 분열로 어두워진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것입니다. 

김수환 추기경과 나

김수환 추기경과의 만남

김성수 시몬 / 대한성공회 대주교

옛날에 이천환 주교님과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자주 만나셨는데, 그 당시 저는 이천환 주교님을 모시면서 멀리 떨어져서 김수환 추기경님을 뵈 수 있었죠. 그때는 정말 김수환 추기경님이 높게만 보이고 굉장히 어려운 분으로 생각했었죠. 그런데 나중에 제가 주교가 되고 나서 김수환 추기경님을 만날 일이 있었어요. 그때 추기경님이 천주교는 이리이러한 것들이 문제고 성공회는 이리이러해서 참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분이 좋았죠. 우쭐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김수환 추기경님은 그냥 나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씀인데, 제가 그것을 끝이끝대로 들으면서 좋아했으니 내가 얼마나 못난이예요. 그분은 자신이 바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못난이예요. 아주 못난이예요. 어쨌든 그만큼 그분은 말씀을 하실 때, 상대방을 잘 배려하시면서 말씀하시곤 했어요. 배려심이 참 많으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보니 추기경님 앞에서 못난이같이 행동한 일이 또 있네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한국을 방문해 주셨을 때였어요. 교황 환영식에서 교황님과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추기경님이 사람들을 알아서 잘 소개해 주시고 계셨

어요. 저는 제가 잘 하지도 못하는 영어로 저를 직접 소개했는데, 교황님이 제 말을 못 알아들으신 것 같더라고요. 순간 약간 어색했는데, 추기경님이 바로 저를 교황님께 잘 소개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가만히 있으면 추기경님이 알아서 잘 소개해 주셨을 텐데, 괜히 제가 나섰던 거죠. 하여간 추기경님 앞에서 제가 참 못난이 짓을 많이 했네요.

그리고 옛날에 명동성당에는 노동자들이 데모를 하러 많이들 왔었잖아요.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인데, 노동자들이 바닥에 다 길게 줄지어 앉아 있었죠. 추기경님도 실내에서 모임을 마치고 밖으로 나가는 길이었는데, 비가 오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산을 받쳐줬어요. 그런데 추기경님이 우산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저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비를 맞으며 있는데, 내가 어떻게 우산을 쓸 수 있겠느냐며 그냥 비를 똑같이 맞으셨어요. 그렇게 따뜻한 분이셨죠.

또 제가 추기경님께 배운 것이 참 많아요. 추기경님하고는 그래도 비교적 이런저런 일로 뵈일이 자주 있었는데요. 제가 추기경님을 뵈고 나

서 돌아갈 때면 언제나 문밖까지 나와서 배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 차가 떠나서 사라질 때까지 들어가지 않으셨죠.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뒤돌아보면 언제나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떠나는 차가 사라질 때까지 배웅해 주셨어요. 어찌다 한 번이 아니예요. 매번 그러셨어요.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 감동이었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손님들이 저를 찾아오면 가실 때 꼭 나가서 그분이 안 보일 때까지 배웅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하고 좋게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그게 다 추기경님한테 제가 배운 거예요.

그리고 자살방지 캠페인을 위해서 추기경님하고 같이 길에서 나란히 서서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도 생각이 나네요. 그런데 사람들이 딱 보면 인품이나 아우라가 느껴지나 봐요. 다 추기경님한테만 받아가는 거예요. 허허허. 그래서 추기경님은 30분도 안 돼서 다 나누어 주셨는데, 저는 한 시간을 넘게 해도 유인물이 줄지를 않아요. 하여간 그만큼 추기경님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분이셨죠. 그리고 가까이에서 뵈 추기경님은 정말로 그런 사랑과 존경을 받기에 충분한 분이셨고요.

마지막으로 김수환 추기경님이 돌아가시고 조문을 갔던 기억도 나네요. 정말 많은 분들이 애도하고 슬퍼했죠. 종교를 떠나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셨어요. 저는 추기경님 조문을 가서 그분의 얼굴을 뵈면서 이렇게 큰 어른이 다시 이 세상에 또 나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대의 큰 어른 정도가 아니라 앞 세대와 다음 세대를 통틀어도 다시 나기 힘들 만큼 큰 어른이셨죠. 그리고 돌아가신 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대의 큰 어른이셨던 추기경님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고 계속 기념해 주는 천주교도 정말 감사해요. 그래야 해요.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그분의 삶을 기억하고 본받으려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 추기경님의 삶을 계속 조명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해요. 참고맙습니다. 

김수환 추기경과 나 사람 사는 사회를 위하여

유인태 / 대한민국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이 글은 김문태 편집장이 2019년 2월 18일 국회사무처에서 유인태 사무총장을 만나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저는(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4년 5개월 복역하였고, 제14대, 17대, 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가톨릭 신자가 아니라서 김수환 추기경님을 70년대, 80년대에는 면발치에서 뵈어요. 제가 민청학련 사건으로 1974년에 감옥에 들어가서 4년 반 옥살이를 하고 나왔을 때, 마침 같이 감옥에서 나온 이현배 선배가 가톨릭 신자였는데, 김효순 전 한겨레신문 편집국장장과 같이 가서 인사하며 추기경님을 뵈었습니다. 1978년에 것처럼 처음 인사드렸는데, 소탈하고 인자하고 온화한 이웃집 할아버지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후 1980년대에 들어서 호헌조치(1987년 4월 1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개헌논의 중지와 제5공화국 헌법에 의한 정부이양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그러자 5월 27일 재야세력과 통일민주당이 연대하여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하여 6월항쟁의 구심체 역할을 하였다.)가 나왔을 때, 추기경님이 상당히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한 강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신정권과 마찬가지로 서슬 퍼렇던 군사정권 때, 6월항쟁의 발단이 되었던 박종철 고문치사 진상(1987년 5월 18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공식성명을 통해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 조작·은폐되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에 민

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는 6월 10일 '박종철군 고문살인 조작·은폐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하였다.)이 그 안의 전병용 교도관을 통해서, 김정남 전 수석을 통해서, 또 함세웅 신부님을 통해서, 김승훈 신부님과 이부영 선배를 통해서 전해졌어요. 사제단이 단식농성을 하고, 마지막으로 결국 6월항쟁의 정점으로 명동성당에서 시위대가 며칠 묵으면서 항쟁을 했어요. 거의 혁명이었지요. 그 상징적인 장소가 명동성당이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추기경님이 계셨으니까 명동성당이 민주화 운동의 성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후에 제가 추기경님을 뵈는 것은 국회의원 초선 때였어요. 1992년에 제정구 의원, 원혜영 의원, 이부영 의원 등이 모여서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우선 조화나 화해를 안 보내겠다고 한 거예요.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지금은 선거법, 정치자금법에 의해 꽃을 못 보내게 돼 있지만, 그때는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경조사에 꽃을 전부 다 보냈어요. 그것만 해도 몇백만 원이 들어갔어요. 14명의 초선 국회의원들이 깨끗한 정치 선언을 했는데, 그때 추기경님이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정치자금을 투명

하게 공개하겠다고 선언을 하니까 김 추기경님께서 몇몇 원로 어른들을 모시고 저희들을 격려해 주는 저녁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제17대 국회 때부터 사형제 폐지를 주도했습니다. 17대와 19대 국회의원이 돼서 두 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반수가 넘는 175명, 176명 서명을 받고 사형 폐지 법안을 국회에서 대표 발의하고 활동했습니다. 그때 추기경님께서 해화동에 계실 때인데, 두세 번 모임에 불러주셨어요.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의장이 되기 전인데, 제가 같이 해화동에 가자고 했지요. 추기경님께서 제가 사형제 폐지에 앞장서고 있는 것을 격려해 주셨어요. 꼭 그렇게 되게 하라고 격려해 주셨지요. 1997년 김영삼 대통령 말기 이후 22년 동안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그 이후로 사형선고가 현격히 줄었어요. 사법부도 우리 입법부의 절반 이상이 한꺼번에 서명했다는 것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지요. 예전에는 사형선고 내릴 것도 지금은 무기징역으로 내리고 있어요. 반쯤은 성과를 거둔 것이지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사형을 집행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EU국가와 사법 협정 맺을 때, EU에서 잡혀온 형사범에 대해서 사형을 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EU에서 잡혀온 사람은 사형을 안 하고, 다른 나라에서 잡혀온 사람은 사형을 하면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박근혜 대통령 때에도 사형을 집행하려다 말았거든요.

차라리 사형 집행을 안 할 것이라면 형식과 내용을 일치시켜야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돼야지요. 우리 국민들은 흉악범이 다시 사회에 복귀해서 어떤 범죄를 벌일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갖고 있는데요. 죽여서 내보내느냐, 죽여서 나오느냐는 차이지요. 사형폐지 종교인협의회에서 법안을

성안해서 제가 의원들 서명을 받아서 대표 발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검사 출신들이 법사위에 많이 있다 보니까 몇 사람이 끝까지 반대하면 법안을 계류시켜 놓고 통과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다 실패했지요. 하지만 저는 머지않아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0년대, 80년대 살아오면서 그분만 한 정치지도자가 없으셨잖아요? 그때 어려웠던 사람들, 산업화 과정에서 쫓겨났던 사람들, 제정구 선배가 했던 활동처럼 빈민들을 지역까지 직접 찾아가셨던 추기경님이셨지요. 정치적으로 탄압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돼서 바닥에 있던 분들에 대한 애정이 강하신 모습을 생각해요.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위안을 주신 분이라는 인상이 깊어요. 물론 70년대, 80년대에 해위윤보선 전 대통령 같은 분이 유신반대에 앞장서기도 했지만, 그분은 정치인이셨기에 정치적 반대자라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어요. 또 김재준 목사님, 문익환 목사님 등 개신교 쪽에서도 민주화에 상당히 애쓰신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추기경님의 존재는 개신교의 개별적인 목사님들과 달리 가톨릭이라는 위상이 갖는 조직의 수장이셨으니까 영향력이 컸어요.

그런 자리에 오른 분들이 대개는 현실과 타협하고 더 영달을 추구하고는 하는데, 그분은 현실 타협을 부정하고 탄압받는 분들을 위해 애를 쓰셨어요. 서슬 퍼런 압제 속에서 좌절하다가도 추기경님과 같은 존재가 용기를 넣어주시니까 그 역할을 헤아리기 어렵지요. 서슬 퍼런 시절에 추기경님은 우리 사회의 정신적 지주가 되신 분이었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과 힘든 사람들이 그분의 존재 자체로 위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돌아가신 추기경님이 70년 분단의 아픔을 헤아리시고, 당장 통일은 아니라도 이 땅에 평화가 오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기도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수환 추기경과 나 추기경님의 빈자리

이현구 안젤라 / 김수환 추기경의 질부

며칠 전 추기경님에 대한 원고 청탁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은 후 우선 하느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온 국민이 존경하는 추기경님을 ‘작은아버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고, 가족의 일원으로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1969년 추기경님의 장조카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살림살이가 팍팍해 부업으로 피아노 교습을 시작하였습니다. 전공은 아니었지만, 열심히 가르치다 보니 학생 수가 늘어 부업이 본업이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시어머니께 매달 적지만, 성의껏 돈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던 1994년에 저의 남편 김병호 바르톨로메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추기경님은 ‘병호야, 잘 가 그레이’라고 쓴 조화를 보내주셨고, 장례미사를 직접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지까지 오셔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일일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셨습니다.

추기경님께서 매우 편찮으셔서 많은 분이 기도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 무렵 집안의 큰 행사로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여 식사를 할 때, 추기경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불러 시댁 식구들 앞에 서게 하시고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광산 김씨 뒷줄이고, 우리 집안의 기둥은 안젤라다. 안젤라가 그동안 우리 집안을 위해 애쓴 것에 대해 고맙다는 말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하시면서 저의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무심한 듯하였던 분의 파격적인 사랑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추기경님은 1년에 세 번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설과 추석 때에는 주교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명절을 지내실 수 있게 하려고 우리 집에 오시거나 외국에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생신(음력 5월 8일) 때 저희가 조출한 상을 차려드리면 기뻐하셨습니다. 추기경님이 오실 때면, 가깝게 사는 교우들과 손아랫동서들이 와서 음식을 만들고 본당 신부님과 수녀님 그리고 가까운 교우분들을 초대하였습니다. 그럴 때 추기경님께서 자리를 함께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주로 듣고 계셨습니다. 식사 후 주교관으로 가시기 전 주방에서 봉사한 자매들에게 인사하셨는데, 두어 번 본 자매들에게는 그 집 사정에 대해 관심을 갖고 물어보셔서 다들 감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추기경님은 공과 사를 분명하게 구분하셨습니다. 어느 날 우리 집 살림이 어렵다는 것을 아는 한 분이 저에게 교구에서 평화신문사 사

옥을 짓고 있는데, 커피 자판기 입찰을 해보라고 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는지 추기경님께 여쭙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추기경님은 정색하시면서 “너희가 정식으로 낙찰이 되어도 사람들은 내가 해 준 것으로 안다. 그 누명을 벗을 수가 없다. 그러니 연탄배달을 하든 국수 장사를 하든 추기경의 조카라는 것을 의식하지 말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참 섭섭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해인가 추기경님을 모시고 식사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작은아버님은 구청직원만도 못하세요.” 그러자 추기경님께서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남에게 하나를 부탁하면, 그다음에는 내게 열 가지도 넘는 청탁이 들어온다.” 그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저희는 더욱 조심하면서 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추기경님께서 많은 일로 힘드셨을 텐데, 제 문제로 더 어려움을 드린 것이 얼마나 죄송한 일이었는지를 생각하면 지금도 부끄럽습니다.

추기경님께서 저희 아들 바실리오를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1988년 아들이 서강대학교를 지원하였을 때, 합격자 발표가 임박하자 추기경님께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셔서 여러 번 전

화하셨습니다. 당신이 서강대학교 재단 이사장님이셨지만, 대학에 전화하면 폐가 될까 봐 우리 집으로 전화하셨습니다. 합격자 발표가 나자마자 즉시 바실리오가 합격하였다고 말씀드리자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2008년부터 추기경님께서 매우 편찮으셨습니다. 저는 1주일에 두 번 정도 찾아뵈었습니다. 그러나 저녁 식사를 드시기 전 집으로 돌아왔는데, 왜 그때 저녁 식사가 끝날 때까지 시중을 들어드리지 못하였는지를 생각하면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해 7월 추기경님께서 성모병원에 입원하셨고, 저는 시간이 나는 대로 자주 찾아뵈었습니다. 하루는 병원 침상에 앉아서 물끄러미 천장을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작은아버님, 무엇을 보고 계세요?”라고 여쭙자 “어머니가 생각나는구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연세에도 어머니를 그리워하시다니’ 하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선종하셨습니다. 저는 추기경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살아왔고, 힘들 때마다 그분은 저의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가슴에는 추기경님의 빈자리가 크게 남아있습니다. 

평신도가 만난 평신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기에 즐겁습니다

대담 · 정리
나권일 편집위원

이종명 아우구스티노
춘천교구 평협회장



춘천평협 평신도들은 올해 교구 설정 80년을 맞아 교구장 김운회 루카 주교의 지도로 ‘나부터 먼저 바뀌자’, ‘사랑으로 하나 되자’, ‘신앙의 기쁨을 다른 이들과 나누자’라는 3대 신앙덕목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다. 이 같은 사업을 묵묵히 선두에서 이끌어가는 일꾼이 이종명 아우구스티노 회장이다. 이 회장은 말없이 솔선수범하며 춘천평협을 작지만 알찬 조직으로 꾸려가고 있다. 덕분에 평협이 주관하는 모든 회합에 임원들의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활성화되고 있다. 바쁜 일정에도 취재에 협조해주시고, 자료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신 이종명 회장께 깊이 감사드린다.

❖ 춘천평협에 대한 소개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춘천평협은 1983년, 춘천교구 설정 44년 만에 창립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임원진만 구성되어 명목상으로만 유지되어오다가 2001년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로 개편된 뒤 본격적인 활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평신도 교리교육, 소공동체 활성화, 시복시성을 위한 전국 성지순례를 함께하며 복음을 나누고 친교를 다졌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춘천교구 내 단체장뿐만 아니라 모든 본당 사목회장까지 포함하는 춘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로 조직을 개편해 지금까지 춘천교구 평신도를 대표하는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어떤 분들이 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지요?

평신도들의 영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구 사목국장인 김혜중 세례자 요한 신부님을 지도신부로 모시고 있고요, 14대 회장인 저 아우구스티노와 유효현 알렉산데르 수석부회장, 이용선 베네딕토 부회장, 김영숙 미카엘라 부회장, 김미영 베네딕타 여성연합회장 등 네 분이 당연직 부회장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30명의 춘천평협 임원과 6개 지구(61개 본당) 지구장과 성당 사목회장, 제단체장으로 구성된 25명의 상임위원들이 주님 안에서 순명하는 자세로 사도직 활동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단계 높은 명도학당으로 업그레이드

❖ 춘천평협의 올해 중요한 현안은 무엇이고,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2015년에 평단협에서 평협으로 개편됐지만, 아직 완전한 평신도 조직으로 구성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교구본당 사목회장과 교구단체장을 모두 아우르는 평신도 대표조직으로서 평신도 사도직 역할을 다하는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먼저 계속사업으로 평신도 신앙교육의 못자리이자 신자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교육인 ‘명도학당’을 보다 발전된 형태로 업그레이드해 가톨릭회관에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임 춘천교구장 장익 주교님이 2002년 개설한 명도학당은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교리교사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과목을 마련해 성숙한 신앙의 밑거름이 되고 있는데, 이를 더 심화시킬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올해 11회를 맞는 ‘38선 티모테오 순례길’을 걸으면서 이광재 티모테오 신부님의 회생과 돌봄, 순교의 삶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도 사제와 수도자, 신자 등 1,200여 명이 순례 중에 기도 지향을 뽑아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다짐했는데, 올해는 이를 내면화하

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아울러 춘천교구 6.25 순교자 시복시성을 위해 지금까지 70여 개의 성지를 순례했는데, 올해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우리 춘천교구 평협 임원 및 상임위원 연수를 2차례 실시할 예정으로 있는데, 평협 임원들과 잘 협의하고 노력해서 알찬 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회장 취임 이후 평협 활성화를 위해 많이 노력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취임 이후 초기교회의 초석을 쌓은 평신도들의 신앙의 삶을 소개해 홍보하고자 자랑스러운 평신도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평협 활성화를 위해 우선 회장인 저부터 발로 뛰면서 친교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6개 지구장 성당을 방문해서 신부님과 사목회장을 만나 평신도 사업을 의논했고요, 올해는 소규모 본당을 방문해서 평협의 역할을 알리면서 소규모 본당 복음화사업에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구별 사목회장 회합에 참석해서 본당 사목회장과 평신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협 사업에 반영하고, 교구평협과 본당과의 연결고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교구설정 80주년 맞아 3대 신앙덕목 실천

❖ 춘천교구는 올해 교구 설정 80주년을 맞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지난해 12월 1일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교구장 김운회 루카 주교님 주례로 교구설정 80주년 개막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주제 성구가 ‘주님의 빛 속에 걸어가자!’(이사 2,5)인데요, 이날 주교님께서 강론을 통해 “하느님의 자비로 이뤄진 80년이란 시간은 감사의 시간일 뿐 아니라,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시간”이라며 우리 평신도들에게 세 가지 신앙덕목을 제안하셨습니다.



▲ 평신도 회년 폐막미사 후 김운회 주교님과 함께

첫째 ‘남들이 바뀌길 바라기에 앞서 나부터 먼저 바뀌자’, 둘째 ‘서로가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되자’, 셋째 ‘이미 받은 은총에 감사하며 신앙의 기쁨을 다른 이들과 나누자’라고 하셨습니다. 80주년을 맞는 올해는 이 세 가지 신앙덕목을 실천하는 데 매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1년 동안 각 본당을 순례하는 교구 수호성인인 ‘예수 성심상’을 맞이하면서 교구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고취하게 하는 일, 평일미사 참여하기, 지향을 둔 단식의 날 실천하기, 성시간 성체조배, 성경통독 일기를 통해 매일 말씀과 함께 보내기 등도 중요한 사업입니다. 춘천평협은 주교님께서 제시하신 신앙덕목을 평신도들이 긍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실천사항을 제시하여 함께할 수 있는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교구

장님의 사목방침에 평신도들이 쉽게 다가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작년에 실시 하였던 평신도 회년의 실천내용과 잘 연계해서 실천할 생각입니다. 특히 11월 24일은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대축일’로 교구 80주년 감사미사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평신도들에게 은총과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 지난해 춘천평협의 사업 중에서 기억나는 일이나 특별히 보람 있었던 일들이 있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지난해 평신도 회년을 보내면서 춘천평협에서는 회년 사업으로 크게 두 개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평신도 회년 수첩을 제작해 12개의 신앙 실천표를 만들었고 이를 모두 실천한 신자들에게 평신도 회년 감사미사에서 교구장님의 ‘평신도 회년 축복장’을 드렸습니다. 수첩을 활용하니 특별한 ‘평신도 회년’을 보내게 됐고, 신앙인으로서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구별로 ‘찾아가는 회년 특강’을 실시한 게 기억에 남습니다. 지구별로도 지역이 넓다 보니 모이기 힘든 어려움이 있었지만, 신부님들의 협조로 많은 신자들이 참여하여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구장 성당에서 실시한 회년 특강을 통해 평신도들이 말씀과 기도와 교회 가르침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3일 동안 춘천교구 6.25 순교자 시복시성을 위한 성지순례를 서울과 인천지역으로 다녀왔습니다. 작년이 여섯 번째 성지순례였는데, 성지를 다니면서 앞서가신 신앙선조들의 삶을 묵상하며 순교자 시복시성을 위해 80여 명이 함께 기도하며 순례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신자들의 신앙교육의 못자리인 명도학당을 학기별로 12주씩 2학기를 실시했는데, 학

기마다 계획된 인원보다 수강생이 많았고, 강의를 통해 영성이 성숙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특히 학기 중에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호응이 좋아 금년에도 다녀올까 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행사를 진행하면서 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을지 염려는 되었지만, 부족한 부분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잘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본당에서 신부님과 사목위원들의 협조가 많았고, 평협 임원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에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모든 회합에 임원들의 참여도가 높아져

❖ 지난해 춘천평협의 회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취임 이후 1년 동안 춘천평협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 제가 평협회장으로 임명되어 저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처음엔 사양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를 하느님 도구로 쓰시고자 하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부족한 점 채워주시며 이끌어주시리라 믿고 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평협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임원들과 신자 여러분들이 함께하기에 지금도 긍정적으로 회장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장을 맡은 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평협 월례회의, 상임위원회, 평신도 회년 사업 추진을 위한 임시회의, 명도학당 추진을 위한 임시모임 등 모든 회합에 임원들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지구별 행사에도 다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순

조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춘천교구 가톨릭 공동체가 서로 사랑으로 연대하고 일치하는 가운데, 춘천평협의 존재 이유도 사제와 수도자 및 평신도들에게 서서히 각인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회장님께서서는 평협 활동을 언제부터 하셨는지요? 평협이 회장님께 주는 기쁨이나 보람에 대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본당(후평동)에서는 사목위원으로 오랫동안 봉사를 했고요, 본당 제 단체 모임의 평협회장도 맡아서 일했습니다. 2016년 교구평협이 평단협에서 평협으로 개편됐을 때, 사목회장 뒤편으로 상임 부회장을 맡아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후평동성당 사목회장 4년차였지요. 그러다가 2018년부터 14대 회장을 맡아 하느님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집 벽에는 ‘몸으로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 가슴으로 느끼며 사랑하는 가족 되자’라는 글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습니다. ‘사랑’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으로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만 가정이나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제 말이나



▲ 지난 1월 1일 김운회 주교님과 신년하례 인사 후



▲ 춘천교구 사제와 평신도 1,200여 명이 참여한 38선 티모테오길 도보순례



▲ 평신도 회년 폐막미사 후 축복장 수여자와 함께



▲ 평신도 회년을 맞아 영북지구 순회특강 강사님들과 함께



▲ 성지를 순례한 명도학당 수강생들

행동이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평협 일을 맡고 여러 행사를 추진하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제 마음이 움직여 걸음으로 나타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구 일이라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임원들과 소통과 화합하는 가운데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며 활동하고 있어 하느님 사업이 순조롭게 잘 추진되어 기쁘고 감사할 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느님을 믿는 종교구나’

❖ 회장님께서 언제부터 가톨릭신앙을 갖게 되셨는지요? 회장님께서 신앙을 가지게 된 사연과 에피소드도 궁금합니다.

천주교 신자가 된 것은 결혼 후입니다. 부모님은 불교 신자였지만, 적극적인 믿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학생시절에는 친구의 권유로 개신교(감리교회)에 다녔는데, 학생회 활동을 하며 성가대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참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직장을 가지면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신앙생활이 소홀해졌고, 종교에는 관심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같은 직장 상사로 계시던 장인이 딸을 소개하여 결혼하였는데,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성당에 나가는 아내에게 “말리지 않을 테니

▶ 제14대 춘천평협 임원들과 함께



같이 가자는 말은 하지 말고 내 뒤편까지 기도하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저를 그냥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저의 아내와 같은 성당에 다니는 선배가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얼굴만 보면 성당에 나오라고 권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끈질긴 권유에 입교하고, 기회를 보다 그만둔다는 생각으로 성당에 갔습니다. 그러다 교리를 들으며 제 마음에 변화가 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느님을 믿는 종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리를 받는 기간에 결석 한번 하지 않았고, 평일미사에도 참례하였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직장생활에 시간을 내기는 어려웠지만 레지오 활동, 전례, 성가대, 사목회 등 성당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저의 신앙을 변화시킨 것은 꾸르실료 교육입니다. 꾸르실료를 통해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총의 시간을 봉사로 봉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저를 세례 받도록 이끌어주신 분이 대부가 되셨는데, 지금은 이 세상에 안 계시지만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끌어 주신 대부님께 감사드리며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 우리 평신도들의 평협활동과 관련해 회장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말씀해주시요.
김은희 루카 주교님께서 평신도가 교구행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본당 신부님께서도 관심과 협조를 해주셔서 저희가 일하는데 힘이 생깁니다. 교구평협은 본당 사목회와 같은 구조라 하시면서 교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고하십니다. 그래서 춘천평협은 여러 교구 행사를 교구장님의 사목방침에 맞추어 준비하고 실행하는 일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협 임원들은 늘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주님의 사랑을 묵묵히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묵묵히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마음으로 생활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사랑하는 마음 또한 함께할 것입니다. 올해는 춘천평협도 그 어느 때보다 평신도의 역할과 방향을 발전적인 모습으로 전개할 생각입니다. 우리 평협의 자발적인 힘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자각하고, 하느님 교회와 평신도 사도직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평신도가 된다

한국가톨릭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대담 · 정리
김주완 편집위원



▲ 윤영수(스테파노) 회장

우리는 세례성사와 견진성사 때 성령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 성령의 은혜를 새롭게 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돕는 사도직 단체가 바로 ‘한국가톨릭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입니다. 새로운 삶이란 회개하여 하느님 중심으로 사는 삶, 즉 진정한 신앙인다운 삶을 의미합니다. 성령쇄신 운동으로 성사와 전례의 가치가 올바르게 인식되고 교회도 점점 더 쇠신되어 더욱 활력에 찬 교회 모습으로 변모되어 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땅에 도입된 지 어느덧 사반세기를 향해하고 있는 한국가톨릭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윤영수(스테파노) 회장이 그간의 활동 상황과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 ‘한국가톨릭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가 설립된 지도 벌써 45년이 지났습니다. 태동 배경과 설립 목적을 듣고 싶습니다.

한국가톨릭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KCCRS)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의 ‘성령에 대한 새로운 각성’으로 시작되어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가던 성령쇄신 운동이 한국 가톨릭교회에도 전해져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던 1973년 12월 5일에 설립되었습니다. 한국의 성령쇄신을 대표하며 국제적으로 협력하고, 또 각 교구간의 긴밀한 유대도 도모해 나가는 신심 단체입니다.

❖ 봉사자협의회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요?

임원으로 회장 1명과 부회장으로 대표 담당사제가 소속한 교구의 회장(당연직)과 수도자 대표, 여성대표(수도자가 여성이면 남성) 각 1명을 포함한 4명, 감사 2명이 있습니다. 회원은 회장단, 감사, 고문(전 회장), 당연직 회원(각 교구 봉사회 회장)과 추천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추천 회원은 전직 교구 회장 중 1명(대교구와 그에 준하는 교구는 2명)을 각 교구 담당사제가 추천하는 추천 회원과

본회 회장단이 본회 발전에 기여하실 분 5명 이내를 추천하여 대표 담당사제가 위촉하는 추천 회원이 있습니다. 또한 전문 분야 업무를 심의하고 회장이 위임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전문분과위원회(기획, 행사, 전례, 교육, 총무, 국제)를 두었습니다.

❖ 봉사자협의회에서 평소에 수행하는 주요 활동 내용은 무엇인가요?

성직자 · 수도자 · 신학생을 대상으로 2·6·11월에 열리는 ‘성직자 · 수도자 성령묵상회’와 성령쇄신 봉사자를 위한 ‘봉사자 기본 교육’, 연 1회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령쇄신 전국 대피정’과 젊은이 성령 축제, 2년마다 한 번씩 ‘성령쇄신 전국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성직자 · 수도자 성령묵상회에 참가했던 성직자 · 수도자와 각 교구 차장 이상의 봉사자 및 본당 기도회장을 대상으로 4박 5일간 ‘봉사자학교’를 진행하고 있지요.

봉사자학교는 작년 10월 1~5일 개최된 제8차 ‘은사학교’ 때부터 명칭이 바뀌어 아직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성령쇄신 봉사자들 안에서 인기가 많았던 은사학교는 성직자 · 수도자 은사 세미나로 시작되어 2011년에 ‘은사 쇠신 세미나’라는 평신도 봉사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바뀌었죠. 국내외 유명 인사로 강사진을 짰는데, 특히 2017년에 국제가톨릭성령쇄신봉사회 미셀모란 회장이 초빙되어 성령쇄신의 정체성과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재 수료하신 분이 1,300여 명에 이르는 봉사자학교는 일정 이상의 수준을 갖추어야만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해 오신 활동 가운데 특별하거나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다면?

지난 10여 년간 암 전문 요양병원에서 암 환우들과 함께 한 성령치유 기도회를 통해 그들이 하느님을 체험하고 영적 · 육적 · 내적으로 치유 받



▲ 2018년 평신도학교 참가자 일동



▲ 2015년 전국성령대회에서의 '답게 살겠습니다' 선서식



▲ 2016년 5월 전국성령쇄신 1일 대피정



▲ 2018년 4월 14일 성령쇄신 전국대회

아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게 되었을 때입니다. 암 환우 대부분은 부정과 분노, 절망과 타협, 그리고 우울 단계를 거쳐 마침내 수용의 단계에 이른다고 합니다. 수용 단계 전까지는 죄와 악의 세력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통 받고 힘들다, 무섭다, 두렵다, 외롭다는 것이죠. 하지만 기도회 안에서 찬미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 성령이 오시면, 즉 예수님을 만나면 이때부터 그분들은 하느님 사랑 안에서 마음이 열려짐과 동시에 신앙고백을 통해 감사하는 수용의 단계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부터 영적, 내적, 더 나아가 육적으로 치유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어요. 하느님 은총을 체험한 대부분의 환우들은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 신앙생활에서 가장 보람된 순간이었다고 기억됩니다.

2012년에 '주님께 새로운 노래를 불러드리자'는 취지 아래 '성가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2016년 '창작 복음성가 경연대회'를 개최했어요. 응모곡 중 107곡을 묶어 이듬해 12월 25일 『창작 복음성가』집을 펴냈는데, 우여곡절도 많았죠. 발간 첫 삽을 뜬 김현조 회장님을 비롯한 편찬 관계자 분들의 노고가 정말 많으셨고, 제가 주교회의 승인(2017. 7. 17)을 받는 등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2018년 7월 12~13일 수원 아론의 집에서 이 성가집을 가지고 제1회 창작 복음성가 연수회를 연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 최근에 끝난 큰 규모의 행사나 조만간 치를 행사가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2018년 4월 14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를 주제로 평신도 희년맞이 성령쇄신 전국대회를 개최했습니다. 13년 만에 서울에서 열렸는데, 각 교구 성령봉사회에서 오신 성령 가족과 일반 신자들 4,5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하느님 은혜에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한마당 축제의 시간이었지요. 인도 빈첸시오 소속

사제로 영성신학자이신 안토니 파란키말릴 신부님의 강의와 치유기도, 원주교구장 조규만 주교님이 주례하신 특별 미사 등으로 진행되었어요. 특히 이 대회를 통해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은사를 체험함으로써 믿음과 기쁨이 함께하는 새로운 복음화에 대한 중추적 역할로 거듭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곧 치르게 될 행사로는 9월 29일(일)부터 10월 5일(토)까지 음성 꽃동네 사랑의 영성원에서 국제 가톨릭성령쇄신봉사회(ICCRS) 강사 3명이 전국 성령쇄신 핵심 봉사자 120명에게 지도자 훈련과정(LTC)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이 교육이 끝나는 마지막 날에는 같은 장소에서 전국 성령가족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2019년 성령쇄신 전국대회가 개최될 것입니다.

❖ 다른 나라들과의 국제 교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2016년 9월 5~9일 제6차 은사학교

교류는 많지만, 근래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31일~6월 4일 성령쇄신 50주년 기념 세계성령대회가 로마에서 열려 191명이 참가했고, 작년 4월 6~8일 대만에서 열린 아시아 성령쇄신 청년 활성화 회의와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라스 알 카이머'에서 열린 제4회 아시아·오세아니아 성령대회 및 회의에 각각 2명씩 참가한 바 있습니다.

❖ 향후 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의 계획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간략히 알려주십시오.

우리 모두는 성령께 의탁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고 순명함으로써 자유를 얻고 은사와 열매로 풍요로워지는 성령 안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앙생활의 기본인 향주삼덕의 삶을 예언직·왕직·사제직의 삼중사명의 수행을 통해 드러냄으로써 새로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단체

나눔

신앙 선조를 움직인 한 권의 책

『진도자증(眞道自證)』

- 참된 진리는 스스로 증명된다 -

정리

송란희 편집위원



▲ 2018년 평신도학교 교육 모습



인 우리들에게 특별히 더 부여된 사명은 교회 공동체 발전을 위해 교우들과 교회의 모든 지체들에게 성령의 은총과 은사를 가득히 내려주시기를 청하고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끼리가 아닌 교회의 모든 분야에서 사랑으로 함께 하며 증거하는

인 봉사활동, 셋째 선교에 대한 용기와 지혜, 그리고 교회 밖의 사회복지 시설에서의 봉사활동에 앞장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 밖에 들려주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무엇보다 성령쇄신에 대한 주위의 올바른 이해가 있었으면 합니다. 더러는 성령쇄신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너무 치유에만 치중한다고 여기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성령쇄신의 주된 목적은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복음 선포와 하느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찬미하고 기도하며 봉사하는 성령쇄신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 2018년 성령쇄신 전국대회 포스터

보편적 영성운동으로 성령쇄신이 교회 안에 자리 잡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개인의 삶과 인간관계의 긍정적 변화, 둘째 교회 내에서의 단체활동과 능동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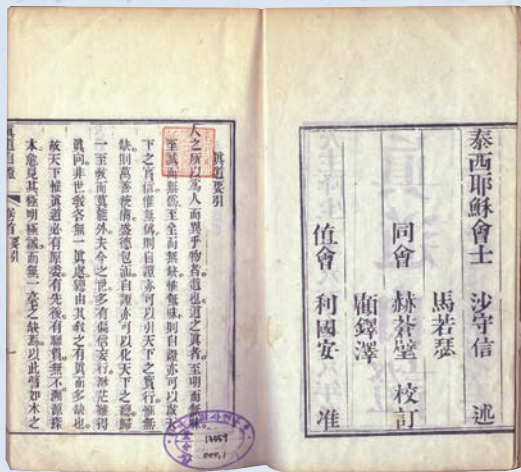


▲ 『진도자증』은 천주교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명쾌하게 설명한 교리서이다(1868년,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진도자증』은 프랑스 출신 예수회 선교사 샤바낙(Emeric Langlois de Chavagnac, 沙守信, 1670~1717년) 신부의 저술이다. 샤바낙 신부는 1685년에 예수회에 입회하였고, 1701년에 중국에 건너가 사목하다가 1717년에 지금의 중국 강서성(江西省) 파양현(鄱陽縣)에 있는 요주(饒州)에서 선종했다. 그가 죽은 지 일 년 후인 1718년 같은 예수회 선교사인 에르비외(J.-P. Hervieu, 赫蒼璧, 1671~1746년)가 스스로 저술한 「정진도자증(訂眞道自證)」을 보태어 북경에서 4권 2책으로 출판하였다. 「정진도자증」에는 『진도자증』을 간행하게 된 동기와 의의, 그리고 말미에 “강희 58년 기해 삼월 1718년 서양 예수회 수사 혁창벽 찬”이라고 본인의 이름을 밝혀 두었다. 이후 1794년에는 북경 교구장 구베아(A. de Guvea, 湯士選, 1751~1808년) 주교의 감준을 받아 출판되었으며, 상해 토산만(土產灣)에서 1858년, 1868년, 1887년, 1917년, 1927년까지 지속하여 간행되었다.

구성

책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천주교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명쾌하게 설명한 교리서이다. 천주의 존재, 강생구속(降生救贖), 삼위일체(三位一體), 상



▲ 진도자증

선벌악(償善罰惡) 등 천주교의 4대 교리를 비롯하여 구세사, 그리스도론, 마리아론, 종말론(終末論) 및 신앙생활 등 천주교의 모든 가르침이 총망라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잘 정리되어 있다. 주요 목차를 살펴보면, 제1장 권수(卷首, 머리말)는 4개의 소주제로, 제2장 성리(性理, 본성의 이치)는 4개의 소주제로, 제3장 사도(事道, 도리를 섬김)는 6개의 소주제로, 제4장 박의인거(駁疑引據, 증거를 끌어들이 의심을 물리침)는 4개의 소주제, 제5장 교(敎, 천주교의 가르침)는 6개의 소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독자들이여, 운무를 헤치고 푸른 하늘을 보듯이 이치를 꿰뚫기 바란다.”

제1장 머리말에는 저자가 책을 쓴 이유가 실려 있다. 사바낙 신부는 ‘덕은 단단한 돌을 저절로 감동시키며, 도는 저절로 드러나 견고한 마음을 감복시킨다.’라고 하면서 ‘독자들이 운무를 헤치고 푸른 하늘을 보듯이 이치를 꿰뚫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또한 입과 귀의 공명을 바라지 말며, 마음을 비우고 진리를 만나기를 소망했다.

제2장에서는 본성의 이치를 두 가지로 정한 후 조물주와 피조물을 정의하고 있다. 특히 죄인을 규정함에, ‘천주님의 현재 은혜를 잊고 자신만을 위하며 세상 즐거움에 연연하여 천국의 상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도 하였다.

제3장 신분사정(神分邪正) 항목에서는 천사들이 선한 천사와 악한 마귀로 나누어진 연유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인류(人類) 상·하(上·下)의 항목을 통해서 인간의 창조, 원조의 범죄, 세상의 타락, 구세주의 등장, 성교(聖敎)의 봉행(奉行), 예수의 강생, 공생활, 십자가 수난, 부활, 승천 등 구세주 일대기를 통한 가르침과 권고 등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교회의 핵심 가르침을 ‘참된 주님과 원죄와 예수님을 참되게 아는’ 세 가지로 정리했다.

제4장은 ‘증거를 조목조목 끌어들이 의문을 풀

어준다’는 제목처럼 예수가 비천하고 가난하게 출생하여 죄를 지은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속(代贖)한 사실, 하느님은 모든 덕(德)을 골고루 갖추고 계시다는 점, 천주교가 참된 도리임을 증명하는 내용 등을 설명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천주교의 가르침을 다시 한 번 정리해 준다. ‘교리의 핵심과 주요 교리, 참 행복 여덟 가지,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할 때 발만 구르지 말고 더욱 크게 공부하기’ 그리고 병이 깊어지면 약으로도 고치기 어려운 것처럼, ‘천주교를 신앙으로 사는 것’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조선의 지식인들 『진도자증』을 읽다

연구자들에 따라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이 책이 조선에 유입된 시기를 대체로 1784년 전후로 본다. 1784년 북당에서 세례를 받은 이승훈(李承薰)이 가지고 왔다는 것이다. 홍정하(洪正河), 안정복(安鼎福), 이기경(李基慶) 등은 책을 읽고 비평을 남겼다. 또한 여러 기록으로 볼 때, 이승훈, 정약용(丁若鏞), 김건순(金健淳), 이합규(李鶴逵), 정인혁(鄭仁赫), 최필공(崔必恭), 홍익만(洪翼萬) 등도 읽은 것으로 추정된다.

『벽위편』을 편찬하여 척사(斥邪)에 앞장섰던 이기경은 “이승훈이 밤중에 휴대하기 간편한 수진본(袖珍本) 『진도자증』 3권을 가지고 왔다.”고 했다. 그리고 노비 출신 이합규는 신유박해 순교자인데 주문모 신부가 세운 명도회 가운데 아현에 살던 황사영이 주도하던 육회(六會)에 가입하여 활동했다. 그도 『삼본문답』, 『성교일과』, 『진도자증』을 손씨의 어머니에게 빌려 읽었다고 했다.

최필공도 이 책을 다른 교리서와 함께 빌려 읽었는데, 『진도자증』을 책 만드는 종이와 맛바꾸었다.’고 자백하기도 했다. 그리고 복자 홍익만은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안산과 여주로 피신했다가 포졸들에 체포되어 포도청과 형조에서 형

벌을 받았다. 신문 과정에 홍익만은 “...사호를 이승훈에게 받았는데 안당(安堂, 안토니오)이라 하였고, 영세하는 법식도 받았습니다. 갑인년(1794년) 경에는 『진도자증』이라는 책을 이승훈에게서 빌려 보았는데, 그 뜻이 심오했으므로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빠졌습니다.”라고 하였다.

다산 정약용도 이벽에게 천주교 교리를 듣고 그의 열정적인 논리와 강직한 태도에 호기심을 느껴 천주교 교리서를 몇 권 빌려다 읽었는데, 그 중에 『진도자증』이 있었다고 했다.

한편 홍정하와 안정복은 『진도자증』을 읽고 구체적으로 비판하는 글을 남겼다. 먼저 홍정하는 유교 지식인의 입장에서 천주교 교리를 비판하는 「진도자증증의」를 남겼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천주교는 참된 도리가 아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9만 리나 되는 먼바다를 건너와 거짓된 도를 전할 사람이 있겠느냐고 말하지만 그 도가 참되지 못한 점이 바로 거기 있다. 그들은 나라를 떠났으니 임금을 버린 것이요, 부모와 이별하였으니 아버이를 버린 것이요, 형제와 이별하였으니 동기를 버린 것이요, 장가를 들지 않았으니 부부를 버린 것이요, 후손이 없으니 자녀와 가문의 성을 버린 것이다.”라고 비판하였다.

『천학문답』을 지은 안정복은 “상제(上帝)가 친히 강생하였다고 하며, 또 감히 못 박혀 죽었다고 하였으나 죽지 않았으니 그 어리석고 몽매한 무지가 존엄을 모독함이 심하다.”며 윤리적인 면에서 비판하였다. 이처럼 『진도자증』을 비판하는 글들이 다수 남아 있다는 것은 반대로 이 책을 가까이 두고 깊게 공부한 사람이 많았다는 반증이 된다. 초기 교회 신자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리서를 가까이 두고 읽었다. 그 결과 정약충처럼 한글 교리서 『주교요지』를 저술할 수 있었으며, 모진 박해 속에서도 단단하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다. 

신앙 선조의 불꽃 같은 삶

‘하느님의 종’ 이승훈 베드로

정리
송란희 편집위원

2017년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에서는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에 대한 시복자료집 제1집을 간행하였습니다. 하느님의 종 133위는 모두 평신도입니다. 자발적 신앙 공동체를 세운 한국교회 초기 신자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 평신도에게는 언제나 모범 중에 모범입니다. 이에 자료집의 내용을 발췌·정리하여 게재합니다. 한국 천주교회의 역사를 공부하고 순교 영성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의 첫 세례자”

1784년 이승훈(李承薰, 1751~1801년)이 한국 천주교회의 첫 세례자가 된 ‘사건’에 대한 첫 기록은 당시 북경에 있던 예수회 소속 방타봉(Ventavon, 1733~1787년) 신부가 고향의 동료 신부들에게 보낸 편지(1784. 11. 25)이다.

방타봉 신부는 “천주께서는 아마 그로 하여금 아직 어떤 선교사도 들어가지 못한 나라를 복음의 빛으로 비추게 하실 것입니다. 그 나라는 중국 동편에 있는 반도 조선입니다. 이 조선 사신들이 작년 말에 왔는데, 그들과 그들의 수행원들이 우리 성당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종교 서적을 주었습니다. 이 양반 중 한 분의 아들은 나이 27세인데 박학하여 그 서적들을 열심히 읽어, 거기에서 진리를 발견하였고, 또 천주의 은총이 그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교리를 깊이 연구한 다음, 입교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에게 성세

(聖洗)를 주기 전에 그에게 많은 문제를 물어보았는데, 그는 모두 잘 대답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중에서도, 만일 왕이 그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신앙을 버리라고 강요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결심이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서슴지 않고, ‘이 종교를 버리기보다는 차라리 모든 형벌과 죽음까지도 감수하겠다’고 했습니다.”라고 썼다.

유교만이 정학(正學)인 줄 알고 유교적 예식과 풍속을 실천해 온 이승훈이 세례를 받기까지 즉, 개종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북경에 체류하던 단 2개월이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교리에 대한 이해와 통회는 강렬하게 진행되었다. 만일 이승훈이 천주 신앙의 문 앞에 섰으나 성령의 은총이 개입하여 그를 문 안으로 들어놓지 않았다면, 이승훈은 천주학(서학)을 학문으로 인식할 뿐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이다.

이승훈에 대한 기록은 다른 이들에 비해 많다.

시복 자료집에 따르면, 교회 기록이 12건이고 정부에서 편찬한 관찬 기록이 26건, 이만채 등 개인 기록이 7건이다. 그 밖에 『평창 이씨 족보』와 『사마방목』(1790년, 생원시와 진사시 합격자 명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겼다고 하는 「유시(遺詩)」가 있다. 그에 대한 교회 측 기록은 편지들이 많은데 이승훈이 북당 선교사들에게 쓴 2통의 편지도 있다(프랑스어 번역본으로 원본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그 편지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깊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했으며 성사의 은총을 받고 싶어 했는지 알 수 있다.

사제품을 받지 않은 채 성사를 행한 것을 ‘하느님의 은총을 완전히 저버린 채 마귀의 종이 되어’라고 표현했으며, ‘세례를 받을 당시 마땅히 알고 있어야 할 교리를 피상적으로밖에 알지 못하여 잘못을 저질렀다.’며 ‘세례를 다시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또한 ‘세상의 모든 나라는 구속의 은혜를 받아 신부와 주교가 가득 찼는데 어찌하여 우리만 제외되었는가?’라며 탄식하기도 했다.

나아감과 망설임이 교차하던 삶… 그것도 그분의 뜻

1790년 7월 11일에 「북경의 선교사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이승훈은 어쩌면 자신이 앞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행보를 예감한 듯하다. “저의 집안이 아직 박해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한 처지이지만 그래도 저 힘닿는 대로 열심히 하느님을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당연한 의무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천주교 신자들을 돌보는 일을 책임지는 것은 현재 제가 처한 상황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감히 청하오니, 부디 이 의무에서 저를 벗어나게 해주길 바랍니다.”

이 편지를 쓴 이후 이승훈은 관직의 길로 나아간다. 1790년 10월에 의금부 도사, 1791년 2월에 서부도사(西部都事), 그해 6월에는 평택(平澤) 현감



▲ 「이승훈 초상」(황병기 작, 명동 주교좌대성당 소장). 한국교회사연구소에 남아 있는 프랑스 선교사 피송(Pichon, 1893~1945년) 신부의 원고에는 이승훈이 서소문밖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구경나온 사람들에게 “수확의 때가 왔다. 잘 깨어있어야 할 때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이 되었다. 하지만 5개월 후 파직당한다. 이후 이승훈의 삶은 가시밭길이었다. 예산현(禮山縣)으로 유배를 당하고 1796년 봄에 풀려나 유교 경전이 아닌 것은 책상에 두지 않아 친척과 벗들에게 자신이 교회를 떠났음을 보여주려 하였으나 1801년 2월 9일(양력 3월 22일) 사학도의 원흉으로 체포되



◀ 반주골(현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이승훈의 묘. 이승훈은 순교한 뒤
반주골에 안장되었으나, 1981년
에 유해를 발굴하여 경기도 광주
시 천진암성지로 이장하였다.

었다. 그날부터 2월 18일(양력 3월 31일)까지 총 여섯 차례의 신문을 받았다. 그리고 2월 26일(양력 4월 8일)에 이승훈은 정약중, 최창현, 홍교만과 함께 자신이 살던 염초청다리(현 서울시 중구 순화동의 염천교) 근처 서소문밖 네거리 형장에서 사형당했다. 이로써 조선의 첫 세례자는 서소문밖 네거리 형장의 첫 순교자가 되었다.

월락재천(月落在天) : 달은 졌다고 해도 여전히 하늘에 있지만
수상지진(水上池盡) : 물이 증발해 버리면 연못은 마르고 만다.

-이승훈 베드로가 남긴 유시(遺詩)

마카오 주재 교황청 포교성성 대표부 대표 마르키니(Marchini) 신부는 1790년에 조선 사신들과 함께 북경에 도착한 신입 교우로부터 들은 이승훈에 대한 소식을 포교성성 장관에게 전한다. “6년 전 북경에서 세례를 받았던 이 베드로는 자기 나라로 돌아간 후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였으며 짧은 시간 내에 여러 학자들을 회개시켰다고 합니다. 그 학자들은 모두 또 다른 복음의 전파자가 되었고, 1,000명도

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은 사람들 중에서 남자 12명과 여자 12명을 회장(교리교사)으로 선발하였다고 합니다. …”

다블뤼 주교는 ‘이승훈이 조선에 천주교를 도입하였고 열렬히 그것을 전파하였음에도 대중의 눈에서 벗어나기 위해 행했던 수많은 변절과 그에 동반된 글들로 인해 그 빛이 바래지고 말 것’이라 마음 아파했다. 하지만 이기경의 『벽위편』에 실린 「판결문」을 보면 이승훈의 사형 이유는 오직 ‘사교인 천주교를 이 땅에 처음 들여왔으며 사교의 우두머리’라는 죄목이다.

“너는 직접 세례를 받고 만 리 밖에서 그 책을 구해 와서 인척들에게 전파하고 경향 원근에 퍼뜨렸다. …무릇 나라의 금령이 반포되고 사악한 실상이 모두 드러난 후에도 요사하고 추한 무리들이 너를 교구 대부로 삼지 않음이 없었으니 그 범한 죄를 논하자면 천지간에 그대로 두기 어렵다.”

신유년 2월 26일에 죄인 이승훈은 사형에 처해졌다. 3일 뒤 이승훈의 시신은 자기 집으로 옮겨졌다. 아무도 감히 애도의 말을 하려고 그 집을 방문하지 않았다. 그의 친구이자 인척이었던 심유(沈澍)만이 홀로 상가를 찾아가 시신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나눔

나의 신앙 선조 나의 부모님



최은숙 베드로 / 예수꽃동네 자매회 원장수녀

‘여러분은 모두 생각을 같이하고 서로 동정하고 형제처럼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며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1베드 3,8) 하느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당신께로 이끌어 주십니다.

외조모의 가정이 신앙 공동체가 되기까지

나의 외조모께서는 먹을거리가 귀하던 시절, 농사지는 식량을 모두 도둑맞고 놀라서 속병이 생기셨다. 교우촌인 서근리로 이사한 어느 날, 꿈에 수염이 허연 할아버지가 나타나 “너는 침을 맞으면 죽고, 예수를 믿어야 병이 낫는다.” 하고 사라졌단다. 두 번이나 같은 꿈을 꾸었기에 반신반의 상태로 공소에 가서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자 공소 신자들이 집에 와서 기도를 하고 집안에 널려있는 무속의 잔재들을 태웠다. 이에 외조모께서 “너희가 나를 내쫓으려 한다.”라며 그 자리에서 혼절하였다가 정신을 차리셨다. 이런 연유로 외조모께서 며느리와 큰딸인 어머니와 함께 교리문답을 외워 성령강림절에 신덕, 망덕, 애덕이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신자가 되었다. 외조부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믿겠다고 하시더니 요리강령을 보고 마음이 변하여 스스로 세례를 받으셨다. 이를 계기로 외가 전체가 신앙 공동체가 되었다.



어머니는 동생들과 왕립성당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새벽 2시쯤 일어나 도시락을 싸 들고 30리가 넘는 길을 걸어야 하였습니다. 성당에 가다가 넘어지거나 비가 오면 옷을 버려 경건한 차림으로 미사를 드릴 수 없을지 몰라 걱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늘 무명저고리를 보자기에 싸 가지고 가서 성당 근처에서 갈아입고 미사에 들어가셨다.

결혼 후 부모님의 신앙생활

어머니는 연지 곤지를 찢고 결혼식을 올린 후 친정을 떠났다. 가마꾼들이 무겁다고 투덜거리는 소리에 속상해서 내려 건다가 시택 근처에서 다시 가마를 타고 가셨다. 이전부터 평생 함께할 남편은 아무것도 없어도 좋으니 같은 신앙을 가진 신앙심 깊은 사람이면 좋겠다고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아버지는 15살 무렵부터 무릎을 탁 꿇고 기도했던 사람이었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어디라도 기도하러 가셨다. 하느님의 마음에 들고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신앙에 충실한 분이셨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면도 있으셨다. 몸이 무거운 아내가 “아지 생선이 먹고 싶다.”고 하자 “돈은 모두 어머니께 드려야 한다.”고 말하는 야속한 남편이었다. 군에서 휴가라도 올라치면, “하느님께 잘 보이지 않으면 전쟁 중에 죽는다.”고 온 모습 그대로 군복을 입고 지냈다. 그리고 세숫대야에 물을 담아 둘 사이에 놓고 주무시고 가는 무정한 남편이기도 하였다.

나를 제외한 형제들은 자라면서 한 번씩은 죽을 고비를 맞이하였다. 어머니는 그때마다 신약성서를 들고 가서 읽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다 살아났다고 하셨다. 한번은 아이가 죽었다고 소문이 난 적도 있었는데, 그 아이마저도 살아났다고 하셨다. 아버지를 위해 미사 봉헌을 하시고 전화 통화를 하면, 아버지께서는 겪고 있던 어려움이 해결됐다고 하셨단다. 하느님께 빌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에 미사봉헌을 자주 하셨다. 생일에는 우리에게 선물이 미사봉헌이고, 그다음 이 소고기 미역국이었던 것 같다.

아버지의 교육 방법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자란 우리들은 공부하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나 성당에 가지 않으면 온갖 듣기 싫은 소리를 다 들어야만 하였다. 집에는 늘 꽃이 있었는데, 사순시기에는 좋아하는 꽃도 치워두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만가와 조가를 함께 드렸는데, 어린 나는 많이 졸면서 시간을 때우곤 하였다. 성당 활동은 기본이었지만, 어린 시절의 기억은 동네아이들과 술래잡기와 총싸움, 거북이 놀이를 하며 지낸 기억이 새롭다.

한번은 어버이날 선물로 와인 잔에 초를 만들어 선물로 드렸다. 그런데 바로 그날 청소하다가 테이블보를 당기는 바람에 그만 와인 잔의 목이 깨져버리고 말았다. 그때 하신 말씀이 “교도소가 있는 사람들이 모두 나쁜 사람들이 아니다. 순간의 실수로 그리한 것이다. 그러니 매사에 신중하고 조심하라.”였다. 무엇을 몰라 물으면 “묻지 말고 사전을 찾아봐라. 그래야만 네 것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훈육하셨던 아버지였다.

일하시다가 공소에 일이 생기면 열 일 내버려두고 공소로 달려가 일어난 일들을 해결하셨다. 공소가 성당으로 승격된 후에도 아버지께서는 성당 일이 항상 우선이었다. 그러다 보니 일이 있어 학교에 오게 되어도 우리의 세례명을 부르며 찾았던 분이셨다. 내게 있어 현실의 어느 부분에서 아버지는 참으로 많이 부족하고, 엄격하고, 무서운 분으로 자리매김한 때이기도 하였다.

나의 성장기 신앙생활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집에 돌아가니 비닐주머니 안에 아주 예쁜 목걸이(염주)가 있기에 꺼내



▲ 아버지와 어머니

만지다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악령이 들려 성상을 때려 부수고 난동을 피운 집에 기도하러 가셨다가 가져온 염주였다. 그 말을 듣고는 손이 더럽혀졌다고 생각하여 씻고 또 씻다가 결국 그 손으로 상추쌈을 먹지 못했었다. 며칠 동안...

또 한 번은 JMS라는 종교가 대학가를 중심으로 들불처럼 번지던 때, 건국대 독어독문학과에 다니던 친구가 연극을 한다고 초대하기에 간 적이 있었다. 가 보니 연극이 아니라 그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님을 보고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며 집에 간다고 하였다. 그랬더니 친구의 말인즉 “선배들이 너를 데려오라고 했다.”고 하였다. 친구가 선배들을 소개시키기에 인사하고 돌아오는 길에 내 발이 더럽혀졌다고 생각하고 못내 쓸쓸해하였다. 그 후에 친구는 자살을 시도하였다. 깨어나 빛을 발견하거든 꼭 자기에게도 알려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었다. 태어난 지 3일 만에 세례를 받았고, 크면서 성당에서 많이 보내던 나는 신약보다는 구약의 율법에 더 많이 매여 있었던 것 같다. 중용과 조화의 덕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면서도 신부님이 두

고 가셨던 많은 책들 속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피상적인 것들로의 도피를 하곤 하였다.

방황하는 영혼의 냉담과 열정의 사이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무엇 때문에 왔는가? 왜 사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적인 질문과 방황이 시작되면서 내적 싸움이 길어져 가고 있던 때, 허무와 진리의 가르침 사이를 오가며 고민하였다. 그러던 중 친구가 “학교 앞에 아주 웅한 점집이 있는데, 학생들이 너무 많이 가서 줄지어 기다려야 하는 곳이니 거기 가 보지 않겠느냐?”고 하였다. 예약을 하겠다고 해서 고민하던 기억도 있었다. 하지만 ‘절대자는 살아있는 신이고, 살아 있다면 내게 말을 할 것이다. 그 신은 유일무이한 신이시니 그분을 알아야 한다. 그분을 알면 온전히 따르리라.’는 생각이 크게 마음에 들어차 올랐다. 점집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는지 샘플 같은 존재, 빛, 성령을 만나게 되었다. 성령께서는 한순간에 나를 허무의 세계로부터 끌어올리시고, 치유하셨으며, 생명이신 그분을 보여주셨다. 성령기도회에서는 ‘사람들이 드디어 미쳤구나.’라고 생각

하였다. 그러나 베델에서의 살아계신 하느님 성령께서는 깨달음으로 나의 가정에도 함께 계셨다.

성소 식별

‘은혜로운 때에 내가 너의 말을 듣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2코린 6,2)

장구 배에 피눈물을 흘리던 아프리카 아이의 사진을 보며 선교를 소망하던 나는 수도자가 되면 머리카락 한 올, 뼈 한 조각, 피 한 방울까지 모두 그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내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라고 생각하였기에 꽃동네의 가난한 영성은 한참이나 낯선 것이었다. 그런 내게 주님께서는 “어디에 가든 네게 복을 내리겠지만, 나는 네가 이곳에 머무르는 것이 더 기쁘다.” 하시는 것 같았다. ‘어디를 가든 주님께서 복을 주시겠지만, 이곳에 머무르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면 난 이곳에 머물러야지.’ 하는 생각이 예수의 꽃동네 자매회에 입회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신의 신앙이 나의 뿌리입니다

입회 후 내 믿음의 뿌리가 부모님이었다는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였다. 60, 70년대 아들 딸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했던 그때, 어머니는 들 어선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약을 드시려 하였다. 문득 “아이를 지우는 것이 하느님께 죄를 짓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화장실에 약을 버리셨다고 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이사 43,1)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1코린 13,2)

공동생활의 어려움을 마주할 때 견고한 울타리의 보호를 깨닫게 해주셨고, 풍요로운 물질과 많은 사람들 안에서 힘겨워 할 때 기도해 주고 아낌없는 배려해 주신 가족들과 지인들, 그리고 많

은 신자들이 계셨다. 그래서 물질은 소유가 아니라 관리라는 창설자 신부님의 뜻을 알아듣는 계기가 되었다. ‘이곳에서 복음삼덕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방황하던 나에게 이곳에서도 충분히 수도생활을, 복음삼덕을 살 수 있다는 답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 조금 더 굳건히 희생이라는 또 다른 이름인 사랑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머리카락 희어질 쯤, 내 후배들은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구성하리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다. 많은 분들의 사랑의 기도가 나를 단련시켜 삶의 시련들을 견딜 수 있는 좀 더 성숙한 수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래서 절름발이 수도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이 겪는 기쁨과 행복, 고통과 시련, 아픔들을 온전히 공감할 수 있도록 하셨다. 복음삼덕을 철저히 지켜야겠다고 생각하면, 어느새 피범벅이 되신 당신은 십자가에 계시지 않고 내게 기대시며 현실과 더 하나가 되라고 하신다. 자선과 구결 사이에서 걱정하는 나와 하나가 되어 주시고, 무시와 비판 앞에서 두 손 활짝 펴서 사람들이 던지는 돌들을 다 막아주셨던 당신! 내 것을 조금 내어드리는 것에도 인색하였음을 영혼이 시퍼렇게 되도록 깨닫게 하시는 당신! 주님을 믿는 이들을 시온산 같게 하시고, 매순간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신다.

아! 하느님 당신이셨네요

이제 서원 23년 차! 많이도 부족했던 나는 성령의 인도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희생과 기도로 당신 앞에 서 있다.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치유시키시는 분, 매순간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고자 한다. 부르심에 즉시 “예!” 하고 달려가고자 한다. 나의 생각도 마음도 아닌, 오로지 성령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자 한다.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가난한 이들 안에서 성령과 온전히 일치하여... 

이야기

사도직 평신도의 꿈과 희망

은하수의 화합과 백조의 평화를 묵상하며



정태경 마티아 / 수원교구 평협회장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계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뭇대도 아니 달고 샷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컴퓨터 앞에 앉아 태산 같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반달의 동요가 피아노 음률로 들려온다. 친구들과 밤하늘의 반달을 보며 ‘달 속에 방아 쪼는 토끼’가 보인다고 우겨대던 60여 년 전 어릴 적 시골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펼쳐진다. 도시인들은 모두 이방인이라고도 한다. 예전에 농촌에선 찌리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온 동네 이웃과 화합하며 두레 공동체 생활을 하였다. 반면에 고향을 등지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딱히 정서적 마음을 매어 둘 강나루가 없는 것 같다. 생존 경쟁의 삶을 영위하려고, 보다 더 나은 환경의 터전을 이루기 위하여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며 어디론가 흘러간다. 쪽배를 탄 토끼의 운명처럼... 현 시대를 살아가는, 닳을 잃은 우리들의 자화상인지도 모른다.

은하수는 많은 별들 중에서 결코 큰 별들의 무리가 아니다. 작지만 수많은 별들이 모여 있는 것이 은하수다. 밤하늘을 수놓은 눈에 보일 듯 말듯한 작은 별들이 모여서 이루는 집합체인 것이다. 작지만 함께 모여서 빛을 발하는 은하수. ‘보이지 않는 보잘것없는 것도 뭉치면 크다.’는 화합의 이

치를 묵상하면서, 가톨릭 신앙공동체를 견주어 생각해 본다. 셋별처럼 혼자서 유난히 반짝이는 것도 좋지만, 은하수처럼 작은 반짝임으로 화합과 일치를 이루면 어두운 사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신앙공동체가 될 것이 자명하다.

천주교 수원교구 교구장 이용훈 마티아 주교님은 교구 설정 50주년을 기해서 ‘소통과 참여로 쇄신하는 수원교구!’를 주제로 「교구 미래 복음화를 위한 교서」를 발표하였다. 교구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소통과 참여 그리고 쇄신이라는 복음적 가치가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선포하였다. 평신도 사도직을 수행하는 교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하수처럼 하느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정과 사회와 교회공동체에서 소통과 일치를 이룬다면, 세상 복음화의 거대한 빛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평화스럽게 호수에 떠있는 백조! 고요와 평화의 상징처럼 보인다. 그러나 물위에 떠있는 백조의 모습과는 달리, 물속의 보이지 않는 백조의 발은 놀랍게도 빠르게 움직인다. 잠시도 쉬지 않고 갈퀴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호수에 평화롭게 떠있는 백조를 보고 그 누가 그토록 왕성하게 몸을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겠는가? 이처럼 겉으로는

조용해도 속으로는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것을 '정중동(靜中動)'이라 한다. 결코 요란스럽지 않으면서 알찬 내실을 거둘 때 즐겨 인용되는 말이다. 마찬가지로 친절과 성실로 봉사직을 수행하는 사람은 생색을 내는 법이 없다. 신앙 안에서 봉사직을 수행하는 우리도 백조의 면모를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12년 전, 원곡성당 총회장, 안산지구 평협회



▲ 18대 임기말 상임위 임원진과 함께



▲ 23대 평협회장 임명장 수여식



▲ 미산 골프장 반대 환경마라톤대회

장, 안산 대리구 평협회장을 역임하였다. 또한 교구 평협 상임위에서 선출되어 천주교 수원교구 제18대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장'에 임명되었다. 한 해에만 수만 명의 신자가 증가하고, 여섯 일곱 개 이상의 성당이 신설되고 있었다. 최덕기 바오로 주교님이 건강상의 이유로 은퇴하였고, 이용훈 마티아 교구장님의 착좌식이 거행되었다. 또한 미리내 성지 인근 미산 골프장 건립 반대 운동을 마무리하였고, 교구 평협 4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서 교구민들과의 소통을 통한 화합과 일치에 기여하였다. 또한 교구 선교축구회와 교구 경제인회를 발족시키는 등 교구 발전과 평신도사도직의 소임을 완수하였다. 매일의 생활을 평협회장의 직무에 전념하여도 여러모로 부족하였다.

평협회장의 임기를 무난히 마치고 돌이켜보니 스스로 영과 육이 건강하다는 교만함으로 함께했던 봉사직이 아니었는가 되돌아보게 되었다. 신념으로 다가선 봉사직! 하지만 보람보다는 부족함과 후회가 있었다. 내게는 너무나 과분한 직분이었던 것이다. 이후 본당 봉사직에 충실하면서 못다 한 일에 전념하였다. 성체분배권 수여를 받아 본당 성체 분배의 봉사직과 요셉 노인대학 학장의 봉사직을 수행하였다. 본당 주임으로 처음 부임한 신부님의 간곡한 말씀에 순명하여 다시 원곡성당 총회장, 지구회장, 안산 대리구 평협회장(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을 역임하였다.

12년 전보다 더욱더 중차대한 변화의 시기에 제23대 평협회장의 중책을 다시 맡게 되었다. 현재 수원교구는 대리구제 개편과 더불어 평협 편제도 개편하였다. 교구에 준하는 위상으로 거듭난 제1, 제2 대리구에서도 평협을 구성하고 있으며, 교구 평협 역시 임원진을 새롭게 구성하고 보완하는 단계에 있다. 평협의 모든 면이 새롭게 조직되고 있는 이 시기에 평협회장으로서 지향하는 방향은 바로 교구장 사목 방향인 '소통과 참여'다. 양 대리구의 평협 및 사도직 단체직이 모두 이루



▲ 역대 회장님들과 최 주교님(2009년)

어지면, 215개 본당 총회장들과 함께 소통할 것이다. 교구장 사목교서에서 밝힌 교구 복음화를 통하여 전 교구민이 은하수처럼 화합과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 각 본당의 총회장들이 백조의 정중동(靜中動)으로 겸손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러 분야의 사회 경험을 우리의 신앙공동체 안에서 함께 공유하며 소통한다면, 현 시대에 직면한 신앙공동체의 정체성 확립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리라 믿는다. 아울러 지난해 평신도 희년을 보내면서 축적된 교구민의 일치를 통해, 올 한 해 '수원교구 평협 50주년'을 지낼 것이다. '예수님 살기! 예수님 따르기!'를 신앙생활의 모토로 삼

아 '예수님 찬미'를 생활화하는 평신도 희년의 삶을 살 계획이다. 아울러 자신의 정체성에 충실하게 사는 신앙인이자 세상 안에 사는 교회의 사람이며, 동시에 교회 안에 사는 세상의 사람이 되도록 '찬미 예수'를 노래하며 색신해 나갈 것이다.

실천사항으로는 '우리가족 찾아 하느님께'의 기도를 생활화하면서 쉬는 교우들을 인도하여 주일미사 참례를 교구 평균 30% 이상으로 높이며, 냉담자를 줄이는 일석삼조 운동도 교구민 모두와 함께 뜻을 모아 실현할 것이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평신도의 중요성은 실로 막중하다. '평신도가 현 시대에 그리스도의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주님 은총'이므로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끼며, 교구민 모두는 물론이고, 가족과 이웃 그리고 세상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사명감으로 참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전파해 나갈 것이다. 12년 전 50대 중반의 모습과 현재 70대로 접어든 나의 모습을 돌아본다. 부족한 것은 주님께 의탁하며 평협회장의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ㄹ



▲ 교구설정 50주년 기념 성금 전달식



▲ 교구평협 40주년 2부 행사 역대 평협회장단과 함께

주보성인과 나

토마스 아퀴나스



이상요 토마스 아퀴나스 /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

이상하게 ‘토마스’라는 이름에 친숙감이 든다. 아마 토마스 만의 『마의 산』이란 장편소설 때문일 것이다. 70년대 대학을 다닐 때 나는 한 선배 때문에 이 소설에 푹 빠졌었다. 그 선배는 1,000페이지가 넘는 두툼한 이 책을 항상 옆구리에 끼고 다니면서, 언젠가는 이 책을 뛰어넘는 소설을 쓰고 말겠다고 기염을 토하고 다녔다. 그 선배는 지금 한국문단의 중요한 버팀목이 되어 활동하고 있다.

그 선배 영향으로 나도 이 소설을 읽겠다고 덤벼들었는데, 다 읽는 데 5년이 걸렸다. 제1차 세계대전 탓도 있지만 토마스 만은 이 소설을 완성하는 데 12년, 나는 읽기만 하는 데 그 반의 세월이 걸렸다. 19세기와 20세기 초에 걸쳐 인류가 고민했던 온갖 사상을 나열하면서 촌촌히 짜간 서사구조를 대학 신출내기가 독해하기는 쉽지 않았다. 문장도 엄청 난해하다. 독문과생들에게 듣기로, 토마스 만은 만연체 문장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이로 평가받는단다. 게다가 불어까지 무지막지하게 튀어나와 그들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는다는 것이다. 번역물을 읽을 수밖에 없었던 나는 어려운 내용에다 엉터리 번역이 겹쳐 중간에 책을 집어던졌다. 대학원 졸업 때 다시 집어들어 겨우 끝낼 수 있었다.

이렇게 공들여(?) 읽은 결과,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은 알게 모르게 나의 정신적 성장에 밑거름이 되었던 것 같다. 토마스 만은 게르만 특유의 이원적 대립에 지배당하지 말고, 거꾸로 대립을 지배하고 전진하라고 말한다. 이원적 대립은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한 사상과 사상의 대립으로 나타나지만, 결국 개인에게는 죽음과 삶의 대립으로 귀결된다. 그는 명실 공히 20세기 독일 최고 사상가이자 소설가로 꼽히는 노벨상 수상자다.

대학을 다니면서 꼭 읽어야겠다고 생각했던 책이 세 가지다. 토마스 만의 『마의 산』,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가 그것이다. 당시 신학대전 번역본이 없다는 것을 안 나는 곧 목표를 단테의 『신곡』으로 교체했다. 지금도 신학대전은 못 읽었지만, 나머지 세 가지는 다 읽었다. 몇 년 전 ‘가톨릭매스컴상’ 심사를 하면서 ‘출판 부문’에 출품된 신학대전 번역본을 본 적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나는 ‘신학대전은 못 읽고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번역본으로는 ‘이해불가’일 수밖에 없다는 걸 그때 깨달았다.

대학 졸업 후 늦게 세례를 받기로 한 것은, 지금 돌이켜보면 ‘토마스 아퀴나스’를 세례명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아, 그 이름을 내 영명으로 쓸 수 있나니...’ 나는 조금 감격하기까지 했다. 읽어야겠다고 작정했으나 아직도 읽지 못했고, 읽을 수도 없을 것 같은 책을 쓴 사람이 아니던가. 언젠가 한 친구가 “그 영명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고 물었던 적이 있었다. 지금까지 가톨릭교회는 가톨릭의 의미를 토마스 아퀴나스가 정리한 바에 기대고 있다. 방대한 저술로 큰 산맥을 이룬 성인의 이름을 내 이름과 함께 쓴다는 게 사실 부담스럽다. 남들이 비웃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웬지 모르겠지만 기쁘기도 하다.

멘토로 지도하는 학생 P가 연구실로 찾아왔다. 취업이 힘들어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부모님 권유로 정신병원에도 갔다 왔단다. 학생 부모는 두 분이 다 의사다. 정신병원 진료를 의사 부모가 권했다면, P에게 그런 조짐이 있는 건 사실일 것이다. 내가 보기에 P는 그동안 이상행동을 보이고 있었다. 축 늘어져 있을 때가 많았고, 과제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학교 특성상 전 학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기숙사 룸메이트 얘기로는 한밤중에 성경을 펼쳐놓고 아령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기도 한단다. 그가 무섭다고도 했다.

작가를 감동시킨 작품

음악을 소통의 도구로



심현정 엘리사벳 / 영화음악가

영화 「미션」을 보지 못한 사람은 있어도 ‘이 음악을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음악이 있습니다. 이 선율이 들릴 때면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먼 곳을 바라보며 송고한 음악에 빠져들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미국 가수 ‘사라 브라이트만’이 가사를 붙여 노래한 ‘넬라 판타지아’로 널리 알려진 음악으로, 이탈리아 작곡가 엔리코 모리코 네가 영화 「미션」을 위해 작곡한 기악곡 ‘가브리엘의 오보에’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영화가 개봉했던 1986년, 당시 중학생이던 저는 모처럼 가족과 함께 서울 종로에 위치한 극장으로 나들이를 했습니다. 극장에서 가족이 함께 관람한 몇 편의 영화 중 하나였는데요. 실은 영화의 내용이 난해해서인지 상영시간이 길어서인지 앞부분의 큰 폭포 장면만 열심히 보다 잠들어, 상영이 끝나고서야 깨어나 영화관을 나섰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성인이 되어 다시 접하게 된 이 영화는 제게 잊혀지지 않는 깊은 감명과 진한 여운을 남기게 되었고, 특히 영화음악을 들을 때마다 영화에서 받았던 가슴 벅차 오르는 감동이 다시금 떠오르곤 합니다.

가브리엘의 오보에

영화가 시작되면 정신을 차릴 수 없이 커다란 폭포 소리와 화면을 꽉 채운 웅장한 폭포수를 한동안 바라보게 됩

『마의 산』 주인공 한스 카스트로프는 사춘 요하임 침센을 문병하기 위해 알프스 산속 다보스에 있는 베르그호프 결핵요양소를 방문한다. 베르그호프에서 카스트로프는 자신도 결핵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요양원에 눌러앉는다. 이후 카스트로프는 7년 동안 진보주의자, 반자본주의자, 신의 절대성을 주장하는 예수회원, 이상주의자, 쾌락주의자 등 요양원의 다른 환자들과 교류하고 논쟁하면서 삶과 죽음에 대한 사유를 넓혀 나간다.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시대의 전환점에서 세계는 욕망이 질주하는 장이었다. 그런 장에서 벗어난 알프스 산허리에 자리잡은 요양소에서 카스트로프는 치열하게 내면을 탐색했다. 이런 베르그호프를 토마스 만은 ‘마의 산(魔의山)’이라는 의미로 형상화했다.

90년대 대학생들이 통과의례처럼 읽었던 책이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였다. 처음에는 출판사가 ‘노르웨이의 숲’으로 제목을 직역했다가 폭망(?)했다가, ‘상실의 시대’로 바꿔 재출간해 우리나라에서 대박을 쳤던 작품이다. 이 소설 엔딩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는 장(章)이다. 세상에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묻는 것이다.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스토리는 끝난다. 그런데 소설 속에는 주인공 와타나베가 캠퍼스에서 『마의 산』을 탐독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베르그호프 결핵요양소, 상실의 시대 속 캠퍼스, 오늘 우리 대학이 모두 ‘마의 산’인 듯하다.

P도 삶과 죽음이 대립하는 마의 산 어디쯤에서 헤매고 있는 걸까. 시대는 젊은이들을 ‘n포세대’로 몰아가고 있다. 그들은 우리 세대에 비해 대학 진학률도 높고, 외국어 실력도 좋으며, 외국인에게도 당당하다. 뉴미디어 기기에도 능숙해 그들을 ‘테크놀로주아지’라 부르기도 한다. 이렇게 능숙한 그들이 경제적 주도권만은 아직 쥐지 못하고 있다.

그에게 내가 권했다. ‘성당에 나가보는 게 어

때?’ 그가 눈을 가느다랗게 좁히면서 나를 쳐다보더니 이것저것 물었다. 나는 대답해주는 대신, 블루투스 연결된 컴퓨터 유튜브에서 즐겨찾기 해놓은 성가 몇 곡을 들려주었다.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라며, 그리고 천천히 생각해 보라고 했다.

며칠 후, 그가 찾아와 한 학기 휴학하고 자신을 정리하면서 성당에도 나가겠다고 알려왔다. 부모님 집 근처에 성당이 있어서 거기서 가겠다고. 가지고 있던 성경을 선물로 주었다. 자기도 가지고 있지만, 선물로 받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례명을 어떻게 짓는지 물었다. “교수님은 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했어요?”라고도 했다. 학교에서 세례명을 동네방네 떠돌고 다니는 편이라 내 세례명을 알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 얘기를 듣고 난 그가 자기도 세례를 받게 되면 나랑 같은 세례명으로 하겠다고.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세례명으로 “교수님이 기뻐던 것처럼 자기도 기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대부를 서 줄 것도 부탁했다. 교리공부부터 하고 천천히 결정하라고 했다. 새 학기가 다가오지만, 올봄에는 그를 볼 수 없다. 작년 말 겨울방학을 맞아 그는 서둘러서 짐을 싸고 따뜻한 남쪽 부모님 집으로 내려갔다.

하느님은 아브람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다. 사래에게는 ‘사라’를,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다. 이들은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고 새롭게 태어났다. 민족과 나라의 시조가 된 것이다. 내려간 후 P는 한 번도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나도 연락하지 않았다. 





니다. 이곳은 남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접경 지대에 위치한 이과수Iguazu 폭포로 세계 3대 폭포 중 하나로 꼽을 만큼 그 규모와 경치가 웅장하다고 합니다. 영화는 1750년 현재의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과 인접한 이 지역에 선교활동을 하러 간 스페인의 예수회 신부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신부들은 원시의 모습으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던 과라니Guarani 부족민에게 신앙과 문명을 전하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하지만 유럽 내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스페인에 속해 있던 이 지역을 포르투갈이 차지하면서 생겨나게 된 부족민과 신부들의 희생과 참사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과수 폭포 너머에 거주하는 과라니 부족민들이 한 백인남성을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 폭포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는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이를 보고 고심하다 그를 파견시킨 장본인이 본인이라며 아찔한 폭포의 절벽을 맨손으로 기어오르는 주인공 가브리엘 신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위에서 연신 물이 쏟아지는 가파른 절벽의 바위를 힘겹게 하나하나 내딛고 올라서서

마침내 정상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가까스로 벽을 타고 올라와 당도한 수풀 속에서 신부는 준비했던 악기를 꺼내 부품을 조립합니다. 나무로 만든 이 악기는 입으로 불어 소리를 내는 리코더와 비슷한 모양을 했지만, 입술이 닿는 부분에 얇은 대나무 판이 작게 달려 소리가 가늘고 날카롭게 특징인 ‘오보에’라는 서양 악기입니다. 그는 자신의 동료들 십자가에 매달아 내친 다른 인종의 원주민들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준비했던 음악을 연주합니다. 원주민들은 하나 둘 무기를 들고 그를 에워싸며 경계심을 보이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신부가 악기를 불며 차분히 선율을 노래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잠시 자리에 멈추어 한 번



도 접해 본 적 없는 오묘하고 서정적인 선율인 ‘가브리엘의 오보에’를 조용히 듣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한 원주민이 급기야 악기를 부러뜨리며 호통을 칩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부러진 악기를 주워다가 고쳐주려는 듯 이런저런 의논을 하더니 신부를 데리고 마을로 향합니다. 이는 매우 인상 깊은 장면인데요. 언어와 문화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가장 진실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어쩌면 음악을 노래하는 것이라고 가브리엘 신부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국 공용어라고 할 수 있는 음악은 원주민들로 하여금 무기를 내려놓고 귀를 기울이게 만들던 당시 예수회 신부들의 선교 수단이었다고 영화는 이야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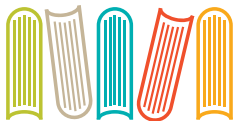
높게는 약 80미터에 달한다는 이 험준한 폭포 절벽을 오르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이 영화에서 다시 등장하는데요.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 멘도사가 이번엔 밧줄로 잡동사니를 허리에 매달아 이를 끌어 가며 힘겹게 절벽을 기어오릅니다. 그는 본래 과라니 원주민들을 잡아서 시장에 내다 팔던 군인 출신 노예상이었는데요. 자신의 아내와 내통한 동생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한 후, 사형 선고를 바라며 식음을 전폐하다 가브리엘 신부를 만나게 됩니다. 신부는 그에게 속죄의 방법을 제안하고, 이는 무거운 짐을 끌고 폭포의 절벽을 오르는 멘도사의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냥 맨손으로 절벽을 오르는 것도 보기 힘든데 밧줄로 짐

을 끌어 가며 미끄러운 바위를 짚고 오르는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애처롭게 보입니다. 이를 보다 못한 일행이 밧줄을 끊어 짐을 떨어주려 해보지만, 기어이 자신의 몸에 다시 줄을 연결해 짐을 매달고는 물이 떨어지는 절벽을 미끄러져 가며 힘겹게 한 발 한 발 온 힘을 다해 기어오릅니다. 그런 멘도사의 모습을 가브리엘 신부는 조용히 바라보며 기다려주는데요. 얼마나 올랐을까, 가까스로 짐을 끌고 정상에 도달한 그를 웃으며 반겨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그물로 잡아서 시장에 데려다 팔았던 다른 아닌 과라니 원주민들. 멘도사는 그들의 팔에 안겨 그렇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이후 가브리엘 신부와 멘도사는 과라니 부족과 공동체를 이루며 평화로운 선교활동을 펼치는데요. 포르투갈 군대가 무기를 들고 폭포의 절벽을 올라와 과라니 마을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몸을 아끼지 않고 군대에 대항하던 그들은 결국 그 자리에서 원주민과 함께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합니다. 롤랑조페 감독, 제레미 아이언스, 로버트 드 니로가 주연했던 감동적인 서사시는 이렇게 거대한 폭포수를 배경으로 얹히고설킨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연을 담은 ‘가브리엘의 오보에’ 선율은 마치 오랜 시간 이 모든 것을 그저 묵묵히 바라보고 있던 이과수 폭포의 물소리처럼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잔잔히 울려 퍼집니다. 

평신도 양서

정리
김선동 편집위원



순간 여행

닐 기유펜트 지음 (김미경 박웅희 김성현 웬김) / 성바오로 / 148×210 / 232쪽 / 15,000원

20편의 우화들로 이루어진 재미있고 감동 가득한 책이다. 인간과 인간, 그리고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안에서, 사랑과 진리를 이만큼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어놓은 책은 쉽게 만나기 어렵다. 사랑과 고통, 진리, 그리고 하느님은 안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 모르겠는 묵직한 주제다. 생각이라는 것을 시작하면서부터 샘물 솟듯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삶에 대한 물음은 인간의 수만큼 다양한 답을 내놓는다. 이 책은 한 눈에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내도를 제시한다. 어디에 높이 있고 절벽이 있으며, 길을 잃었을 때 어디를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 나침반을 꺼내주며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더불어 포근한 사랑도 심어준다.



새로운 시작,
부활이 왔다!

안드레아 슈바르츠 지음 (황미하 웬김) / 바오로딸 / 128×188 / 228쪽 / 8,000원

독일의 국민 작가로 불리는 안드레아 슈바르츠가 대림과 성탄 시기 묵상서 “성탄이 왔다!”에 이어 출간한 사순과 부활 묵상서다. 저자는 ‘희망’에 초점을 두면서 성경과 자신의 체험, 영성을 바탕으로 주제를 명쾌하게 풀어낸다. 또한 믿음과 일상의 삶을 연결하도록 이끌면서 우리의 시야와 사고의 지평도 넓혀준다. 그리스도인들의 최고 축제인 부활절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이끌어 주며, 부활절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도록 초대한다. 일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삶의 어둠을 피하지 말고 일어서도록, 부활과 새로운 삶에 마음을 활짝 열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준다.



다시
만날 거야

잭 빈츠 지음 (임정희 웬김) / 가톨릭출판사 / 127×188 / 140쪽 / 1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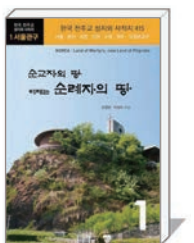
우리는 우리에게 사람이 줄 수 있는 것 이상의 사랑과 위안을 준 반려동물들을 그리워하며 오랜 시간을 견딘다. 그리고 생각한다. 이 세상에서는 다시 볼 수 없겠지만, 이 세상이 끝난 후에라도 다시 만나고 싶다고. 이 책에는 인간과 특별한 교감을 나눈 강아지, 고양이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버려지고 상처 입은 고양이의 생명을 구하고 결국엔 서로가 가족이 된 이야기, 상실의 상처를 교감 능력이 뛰어난 개를 통해 치유 받은 이야기, 안타까운 사고로 강아지와 이별하게 되었지만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거라는 희망을 품게 된 이야기 등이 친근하고 파스한 문제로 소개된다.



가톨릭시즘

로버트 배런 지음 (전경훈 웬김) / 생활성서사 / 140×200 / 544쪽 / 27,000원

가톨릭이란 무엇인가? 가톨릭이 지금은 사라졌거나, 혹은 이제껏 존재하는 여타의 종교들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가톨릭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그 차이에 대해 어떻게 알아야 하며, 무엇을 믿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저자인 미국 로스앤젤레스 대교구 보좌주교 로버트 배런은 가톨릭 신자들에게 신앙의 길을 걸을 때,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기 위한 이정표와 같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콘텐츠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 책은 배런 주교가 3년을 준비해 제작한 동명의 다큐멘터리 「가톨릭시즘」의 원고를 바탕으로 더 많은 이들이 가톨릭의 다채롭고 아름다운, 그러나 진리를 밝히는 것에 결코 소홀하지 않은 여정을 편히 만날 수 있도록 쓴 역작이다.



순교자의 땅
이제는 순례자의 땅

오영환 · 박정자 지음 / 가톨릭출판사 / 140×210 / 394쪽 / 408쪽 / 25,000원(합본)

한국 천주교의 성지와 사적지 415곳을 교구별로 소개한 성지순례 안내서이다. 기존 출간된 「순교의 맥을 찾아서」에서 소개한 성지와 사적지들을 수정하고, 150여 곳의 새로운 사적지들을 보완하여 한국 천주교회 신앙 선조들의 삶과 죽음의 발자취를 거의 망라한다. 방대한 자료를 별책으로 나누어 순례 중 휴대하기에 편리하도록 두 권의 분리형 안내서로 편집하였다. 제1권(394쪽)은 서울관구(서울 · 춘천 · 대전 · 인천 · 수원 · 원주 · 의정부 교구)에 속하는 성지와 사적지를, 제2권(408쪽)은 대구관구(대구 · 부산 · 청주 · 마산 · 안동교구)와 광주관구(광주 · 전주 · 제주교구)에 속하는 성지와 사적지를 포함시켰다.



브라가의
마르티누스

브라가의 마르티누스 지음 (김현 · 김현웅 역주) / 분도출판사 / 136×196 / 208쪽 / 20,000원

이 책은 ‘신자들의 삶과 영성에 꼭 필요한 짧고 감동적인 교부 문헌’ 소개를 목적으로 삼고 있는 ‘그리스도교 신앙 원천’ 총서 중 제5권에 해당한다. 교만, 겸손, 분노, 진실한 삶, 허영심 등의 주제들은 마음공부에 관심을 둔 사람이라면 시대와 환경을 막론하고 누구든 피해 갈 수 없는 물음들이다. 저자는 자신의 삶만큼이나 간결한 필치로 해당 주제들을 깊게 묘사하며, 생생한 경험에서 우리나라 통찰로 아름답게 해법을 제시한다. 그는 교만이 하느님을 거스르는 근원적인 악이고, 겸손은 하느님을 따르게 하는 기본 덕목이지만 겸손을 드러내다가 교만이 되어 버릴 수 있으니,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설파한다. 이처럼 마르티누스의 글은 그리스도교적 실천과 마음공부의 요체를 간결하게 제시한다.

소식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한국평협 총회

50년사 봉헌 · 제35회 가톨릭대상 시상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손병선, 담당사제 조성풍, 이하 한국평협)는 지난 1월 26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1층 강당에서 2019년 제52회 한국평협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한국평협은 회의에서 2019년 사업 계획을 논의 · 확정했다. 올해 주요 사업으로 김수환 추기경 선종 10주기를 맞아 생명나눔 · 생명존중 작품 공모전(한마음한몸운동본부 공동주관)을 진행하며, 제13회 우리성가 작곡 공모는 성경 내용을 노랫말로 삼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더 많은 신자가 평협의 활동을 알 수 있도록 홍보 동영상도 제작하여 방영하기로 했다.

총회 기념미사를 집전한 손희송 주교(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위원장)는 강론에서 “성직자와 평신도 모두 하느님 나라의 일꾼이다. 복음 선포와 실천을 위해

필요한 것은 모두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시니, 함께 봉사하는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맞춰 일하며 어려움을 이기는 빛의 자녀가 되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미사 중 『한국 천주교 평협 50년사, 기억 · 희망 · 증거의 삶』이 봉헌됐으며, 제35회 가톨릭대상 시상식도 진행됐다. 올해 가톨릭대상에는 ‘토마스의 집’이 선정됐다. 토마스의 집은 1993년부터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며 하느님 사랑을 실천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이날 사랑부문 대상을 수상, 상패와 상금을 받았다.

미사 후 서울대교구청 10층에서 한국평협 50년사 출판기념회와 가톨릭대상 축하연이 개최되었으며, 전국의 교구평협 회장단 및 회원단체장들이 참석하여 축하하였다.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서울평협 50주년 타임캡슐 봉헌식
제49회 정기총회 개최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손병선, 담당사제 조성풍, 이하 서울평협)는 지난 1월 19일 서울 대교구청 앞에서 서울평협 50주년 기념 타임캡슐 봉헌식을 했다.

타임캡슐은 지난 50년 동안의 서울평협 역사를 50년 뒤 신앙의 후배들에게 전하려는 의도로 제작되었으며, 캡슐 안에는 서울대교구 주교단의 서신 및 서울평협의 역사를 담은 66개의 물품이 담겼다. 이 캡슐은 서울평협이 100주년이 되는 2068년 11월 30일 개



봉된다.

서울평협은 타임캡슐 봉헌식을 마치고 가톨릭회관 1층 대강당에서 제4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 미사를 집전한 손희송 주교(서울대교구 총대리)는 “지난 평신도 회년이 하느님을 향한 믿음과 교회에 대한 충실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겸손은 교회 봉사자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봉사하기보다 낮은 자세로 어두워진 세상에 등불이 될 수 있는 봉사자가 되어 달라.”라고 요청했다.

서울평협은 총회에서 2018년을 결산하고, 2019년을 사업을 확정했다. 특별히 2019년은 김수환 추기경 선종 10주기로 김수환 추기경 영성 교육 강좌를 마련하며, 추기경 선종 10주년 추모전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교구장 사목교서에 따른 가정 공동체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가정기도 체험사례 등을 공모할 예정이며, 기존의 평신도 아카데미 <리더십과정>을 개편한 <신앙강좌>가 신설된다. 서울평협에서 매년 꾸준히 이어온 시복시성 기원 성지순례도 계속된다.

이번 총회에서는 회칙 개정도 이루어졌다. 기존의 평협 사회사도직연구소를 ‘평신도사도직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평신도 사도직의 올바른 이해와 교육을 돕기 위한 기구로 재정비하기로 했다.

손병선 회장은 올해 평협 봉사 인원을 확충하여 더욱 내실 있는 서울평협 조직을 만들겠다고 말했으며, 더불어 김수환 추기경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며 ‘바보 김수환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한 해를 보내는 평협이 되자고 말했다.

담당사제 조성풍 신부는 참가자들에게 “올 한 해는 김수환 추기경님의 마음과 삶의 정신을 함께 공유하

며 더욱 충실한 주님의 도구로 살아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춘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춘천평협 명도학당 제2기 수료식

춘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담당사제 김혜중, 회장 이종명, 이하 춘천평협)는 지난 2018년 12월 17일 죽림동주교좌성당에서 교구장 김운희 주교와 함께 명도학당 제2기 수료식을 했다.

평신도 신앙교육의 못자리이고 신자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고자 시작한 명도학당은 한 학기 12주 과정으로 총 3학기 36주 과정을 공부하였다.



1학기는 신호철 신부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과 평신도 영성’을, 2학기에는 정태현 신부가 ‘성경의 배경과 맥’을 3학기는 김혜중 신부가 ‘가톨릭 전례의 아름다움과 전례의 영성’에 대하여 강의했다.

150여 명의 수강생은 신앙공부를 하면서 평신도들이 복음화 사명을 다하기 위해 교회와 세상 안에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보냈다.

● 춘천평협 송년 감사 미사



춘천평협은 지난 2018년 12월 22일 교구청 경당에서 평협 임원과 상임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목국장 김혜중 신부 주례로 송년 감사 미사를 봉헌했다.

김 신부는 미사에서 “임원 모두가 힘을 모아 봉사한 덕분에 평신도 회년에 계획했던 많은 사업이 평신도들의 영적 성장에 도움을 주었다.”라며 평협 임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2019년 교구장 사목교서인 ‘주님의 빛 속에 걸어가자’가 평신도들의 삶 속에 묻어날 수 있도록 평협이 앞에서 이끌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사 후 이종명 회장의 ‘2018년 춘천평협의 주요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 또한 이 회장은 ‘교구 설립 80주년(2019년) 신규사업’을 설명하면서 참석한 모든 임원에게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부탁했다.

● 춘천평협 2019년 상임위원 및 임원 연수

춘천평협은 지난 2월 16~17일 대전 정하상 교육회관에서 상임위원 및 임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9차 복음선교 교육을 겸한 상임위원 및 임원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날 연수를 통하여 춘천교구의 총체적인 선교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선교 사례를 들으며 본당 선교 지원을 위한 평협 임원의 역할에 대하여 책임을 다짐하는 기회가 되었다.

춘천평협에서는 매년 초 피정의 집에서 사업 및 예



산심의를 위한 상반기 임원 연수를 실시하였는데, 이번에는 본당마다 입교자가 줄어 선교의 중요성을 새롭게 다짐하기 위하여 선교교육 프로그램이 잘 마련되어 있는 대전 정하상 교육회관에서 연수를 실시했다.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제49차 정기총회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김광현, 담당사제 김민희)는 지난 2018년 12월 1일 정하상 교육회관에서 제49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는 100개 본당과 13개 단체에서 온 340여 명의 본당 회장단 및 사도직 단체 임원, 대전평협 상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2018년 한 해를 결산하고 2019년도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또한 파견 미사 후, ‘평신도 회년’과 ‘교구 회년’의 참 뜻을 이해하고, 삶 안에서 평신도 사도직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평신도 회년 실천 다짐’을 하였다.

● 2019년 지구회장 및 평협 상임위원 신년교례회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지난 2월 2일, 2019년 지구회장 및 평협 상임위원 신년교례회를 개최하였다. 특별히 이번 행사에서 교구장 유흥식 주교는 교구와 본당, 지구를 위하여 수고한 지구회장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또한 교구 신청사 건립, 교구 시노드 등 교구의 각종 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김광현 회장의 2019년 주요 사업계획 설명, 새로 임명받은 지구회장 인사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이날은 교구 지구회장 14명과 평협 상임위원, 교구장 주교와 사목기획국장신부, 사목기획국 차장 신부가 참석하였다.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2019년 평화의 날 미사 및 신년교례회



1월 2일 답동주교좌성당에서 교구장 정신철 주교의 집전으로 세계 평화의 날 미사가 봉헌되었다. 강론에서 정 주교는 “모든 이들이 자신의 문화와 생각, 개인의 이익을 넘어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공동선을 향해 노력하는 것이 평화를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기해박해를 생각하는 기해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새해 인사를 전했다.

미사 중 평신도사도직협의회(담당사제 이용권, 회장 김동빈) 임원 10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되었고, 미사 후 새해인사와 덕담을 주고받는 신년교례회를 진행하였다.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2019 수원교구 평협 상임위원 및 임원 연수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정태경)는 지난 1월 18~19일 당진시에 있는 도비도에서 영성지도신부와 상임위원 및 임원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연수를 실시했다.

연수에서는 2019년도 예산 심의와 수원평협 5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 협의한 후 2019년에 더욱 알차고 활발하게 활동할 것을 다짐하였다. 둘째 날은 공세리



성당에 들러 미사를 드리고 귀가하였다. 수원평협은 매년 상·하반기 연수를 실시하는데 상반기 연수에서는 사업 및 예산 심의를 위한 시간을 갖는다.

원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원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제50차 정기총회

원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신동주, 이하 원주평협)는 지난 1월 26~27일 양일간 치악 청소년 수련원에서 본당 사도회 임원과 단체장 약 150명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였다.

총회에서 설립 50주년을 맞아 올 한 해 동안 '평신도 회년'을 지내고 있는 원주평협의 회년 실천 다짐문을 확정하여 '기도하는 평신도, 하나 되는 평신도, 실천하는 평신도'를 주제로 하느님과 교회 앞에서 한마



음이 되고, 믿음·희망·사랑으로 소외된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신도가 될 것을 다짐했다. 이에 원주평협은 자신과 가정 성화를 위해 매일 가정을 위한 기도를, 본당과 교구 발전을 위해 매일 묵주기도 5단을 바치기로 했다. 또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매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를 하기로 했다.

또한 원주평협은 교구 순례길과 교구 내 본당 순례, 교구민 신앙 대회 등 교회 행사에 적극 참여하기로 하고, 가족과 주변의 쉬는 신자들을 교회로 돌아오도록 적극 권면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부모와 대자녀 모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편 교황청 내사원은 원주교구장 조규만 주교의 요청에 따라 원주교구 평신도 회년 전대사 허용 교령을 지난해 12월 5일 선포했다. 이에 11월 9일 평신도 회년 폐막 미사 때까지 1년 동안 교황의 지향에 따라 기도하는 모든 신자는 전대사를 받게 된다. 또한 회년 기간 동안 다음의 조건 가운데 하나를 이행하는 모든 신자도 전대사를 받는다. 조건은 원주교구 평신도 회년 행사 참여, 평신도 회년 실천 다짐 수행, 지정된 순례지(원동주교좌성당, 배론성지, 풍수원·용소막·정선·성내동성당)를 방문해 기도하면 된다. 이를 위해 원주

교구는 '본당순례수첩'을 제작해 신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본당순례수첩'으로 교구 내 본당을 완주한 이들은 11월 9일 평신도 회년 폐막 미사 때 교구장 주교 명의 축복장을 받게 된다.

조규만 주교는 정기총회 기념 미사 강론에서 "평신도 회년의 기쁜 해를 보내는 만큼 뜻깊은 해가 되도록 함께 힘쓰자."라고 당부했다.

● 교구 신년하례회 및 교구장 주교 영명축일행사



지난 1월 2일 원주평협은 원동주교좌성당에서 교구장 조규만 주교를 비롯한 사제단 그리고 교구 수도자들이 함께하는 신년하례 미사를 봉헌했다. 이날 참석한 모든 사람은 새해를 맞아 서로 인사와 덕담을 나누었다. 또한 원주평협은 이날 영명축일을 맞은 조규만 주교를 모시고 만찬을 가졌다.

● 원주평협 원로사제 방문



원주평협 임원들은 설을 맞아 원로 사제들을 방문하여 새해 인사를 나누었다. 평협 임원들은 해마다 추

석과 설 명절에 교구에 게시는 원로 사제들을 찾아 인사를 드리고 덕담을 나누는 행사를 갖고 있다. 현재 원주교구에는 아홉 분의 원로 사제가 있다.

의정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의정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의정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한호수)는 지난 2018년 11월 17일 민족화해센터 지하 소회의실에서 담당사제 이재화 신부와 전체 19개 단체 중 의결권 수임자 2명을 포함하여 13개 단체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구 평단협 정기총회를 열었다.

총회에서는 꾸르실료 주간예 최인숙(율리안나) 선출 소식과, ME 지구대표로 김병규(사도요한)·차승민(발렌티나) 부부가, 경제인 연합회 회장으로 조광호(미카엘)가 선출되었음을 알렸다.

또한 한호수 회장은 3월 23~24일 양일간 개최될 평단협 봉사자 연수 일정에 대해 공지했으며, 당일 예정되어 있는 교구 평협 출범식에 대한 안내가 있었다. 이재화 신부의 말씀과 축복을 끝으로 총회를 마무리했다.

● 의정부교구 토요일기도회 및 평신도 회년 폐막미사

2018년 11월 17일 정기총회에 이어 참회와 속죄의 성당 대성전에서 교구장 이기현 주교의 주례로 교구 평신도 사도직 단체 간부와 일반교우들이 참석한 가



운데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토요 기도회와 희년 폐막 미사'가 거행되었다.

로마 시스티나성당 천장화의 신비로움을 간직한 남북 공훈작가들의 합작품인 천장 모자이크 벽화를 배경으로 이루어진 남북화해와 일치를 위한 291차 남북 통일기도회에서 이성만 신부는 북녘 교회 공동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강의했다. 이 신부의 강의가 평신도 희년 폐막 미사의 의미를 더욱 값지게 하였다.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부산교구 평협 제44차 정기총회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도용희)는 지난 1월 27일 양산 정하상바오로영성관에서 본당 회장, 부회장, 총무, 제단체장 3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44차 부산평협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선교사목국장 이장환 신부의 2019년 사목지침 '희망의 해' 해설, 교구 및 울산대리구 평협 정기총회, 제단체 소개, 주제 토의, 파견미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손삼석 주교의 주례로 봉헌된 파견미사 중에 선교, 교리교사, 사랑봉사상 시상식이 있었다.

● 본당 및 성지순례 완주자, 인증서 및 축복장 수여

지난 2월 10일 남천주교좌성당에서 '본당 및 성지순례 완주자, 인증서 및 축복장 수여식'이 교구 평협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경과보고 및 회장 인사, 인증서 및 축복장 수여식(500명), 완주자 대표 체험담 발표, 손삼석 주교 격려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본당 및 성지순례 완주자 중에는 전동 휠체어를 타고 완주한 지체장애인, 도보로만 순례를 완주한 신자, 아미성당 주임 서정웅 신부와 교리교사 및 학생 등이 있어 신자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앞으로도 부산평협은 매년 순례 완주자들에게 축복장과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청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제42회 청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청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길병석)는 청주 내덕2동 교구 연수원에서 2018년 12월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제4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첫날 8일은 본당 회장단을 대상으로 각종 강의를 진행하는 연수로 구성되었으며, 9일은 2018년 한 해를 결산하는 정기총회를 가졌다.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마산교구 평협 제49차 정기총회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총회장 한일문, 담당 사제 박창균)는 지난 1월 19일 마산 웨딩그랜드에서 250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9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시작기도와 더불어 담당사제, 교구회장단, 교구단체장 소개가 있었으며, 지구별 · 단체별 순으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었다.

한일문 회장은 2019년 교구 평신도 사도직 활동지침서 발표를 통해 교구 평협의 개요와 사업을 안내했다. 또한 평협 설립 50주년을 맞아 '봉사와 환경실천의 생활화' 운동을 펼치기로 결의하였다.

정기총회에서는 2018년 사업보고와 결산보고가 있었으며, 2019년 사업계획과 예 · 결산을 심의했다. 이어서 교구장 배기현 주교는 파견미사에서 "각자의 직분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복음화를 통해 살아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며, 새 교구청 이전에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총회에서 제10회 복음화대상 시상식도 마련됐는데 냉담교우 17명을 회두시킨 임덕순(엘리사벳, 중동성당) 씨가 개인 회두대상을, 최남순(스텔라, 사림동) 씨가 선교대상 개인 최우수상을, 양덕동성당 하늘의 문 Pr.(단장 윤미선 파비올라)이 단체 최우수상을 받았다.

● 교구평협, 태국 치앙마이교구 연수



마산평협은 지난 1월 21~28일 태국 치앙마이(Chiang Mai)교구의 RTRC(종교문화연구훈련센터)를 중심으로 소수민족인 카렌(Karen)족 마을과 아카(Akha)센터를 비롯한 복지시설 등 사목 현장을 방문했다. 연수는 현지 연수담당 니팟 신부(Fr. Niphot)의 지도로 '살

의 신학', '찬미 받으소서', '현대사회의 복음화' 등 세 가지 주제로 실시하였다.

연수에는 교구평협 위원과 본당 회장단, 단체 등에서 14명이 참가하였다. 평협 관계자는 이번 연수를 통하여 생태환경의 중요성 등 교황 회칙과 관련한 삶의 현장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평협 설정 50주년을 맞아 평신도 사도직의 정체성과 봉사자의 자세를 재정립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면서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동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안동교구 평협 총회

안동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권혁기, 담당사제 김정현)는 2018년 12월 15일 교구청 대회의실에서 평협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안건은 2018년 결산보고와 2019년 예산에 대한 심의였으며, 동해지구·의성지구 소식과 제27회 교구친교의 날 결산보고 및 내년 도 하계연수 준비에 대한 구체적인 토의가 있었다.

● 1차 상임위원회의

안동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지난 1월 5일 교구청 대회의실에서 1차 상임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안건으로 사목국장 신부의 사목임원 단체장 연수 일정 설명, 교구 설정 50주년 행사 소개가 있었다. 또한 안동지구의 교구 설정 50주년 행사의 협조 방안, 상주지구의 학생의 밤 개최 소식, 교구 친교의 날 행사의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방안, 교구 설정 50주년을 앞두고 (1) 교구 설정 50주년의 의미 (2) 50주년 살아가기 (3) 50주년이 넘겨주는 과제들에 대한 기획분과의 설명이 있었으며, 본당별 순회 강의계획을 나누었다.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사목협의회장 직무교육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신동열, 담당사제 김정용, 이하 광주평협)는 본당 사목협의회장을 대상으로 본당 사목의 일치와 상호간 정보교류, 교구장 사목교서의 올바른 인식과 실천 활동 전개, 교구평협과의 긴밀한 교류와 협조를 위하여 '사목협의회장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1차는 지난 2018년 12월 7~8일에 목포 한국레지오마리아기념관에서, 2차는 12월 14~15일 교구청 대건연수관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특강은 우리 교구의 미래상(옥현진 주교), 교회와 평신도(김길수 교수), 사목평의회의 역할(김정용 신부), 교회와 평신도(최현순 교수)라는 주제로 이뤄졌으며, 교구장 김희중 대주교의 집전으로 파견미사를 봉헌하였다.

본당 사목협의회장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이번 교육은 사목협의회장의 역할 정립 및 정보교류의 장이 되었다. 본당을 대표하는 신자로서 위상과 책임을 통감하게 된 매우 유익한 교육이었으며, 참가자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교구장과의 신년하례



광주평협과 여성위원회 전 임원은 2019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교구장 김희중 대주교와 총대리 옥현진 주교에게 새해 인사를 드리고 다과를 나누며 2019년 평협 및 여성위원회의 주요 활동에 대해 보고했다. 두 분 주교는 교구를 대표하여 봉사하는 임원들에게 "평화의 일꾼들이 되어주길 바란다."라는 말씀과 함께 위로와 격려를 건넸다.

● 광주평협 제48차 정기총회 개최



광주평협은 1월 26일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대건문화관에서 제48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총회에서는 '교회와 사목'이라는 주제로 이봉문 신부(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장)가 특강을 했으며, 2018년도 사업실적, 결산, 감사보고와 2019년도 사업 및 예산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광주평협은 주교님과 함께하는 도보성지순례, 평신도 아카데미 <리더십 과정 3기>, 평신도의 날 심포지엄, 사목협의회장 직무교육 등 활발한 사업들을 계획

하고 있다.

파견미사를 집전한 교구장 김희중 대주교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우리가 가진 몫의 일부를 이웃과 나누며, 눈먼 이가 누구인지, 억압받는 이가 누구인지 살펴야 한다. 내가 먼저 해방되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해방과 구원의 도구가 되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전주평단협 신년교례회 및 임시총회 개최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는 1월 5일 전주교구청 대강당에서 제단체 임원과 본당 사목회장단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교례미사를 봉헌하고 총회를 개최하였다.

미사 강론에서 교구장 김선태 주교는 교구 설정 100주년을 향해서 새로운 복음화를 목표로 노력하고 역설하였다. 이를 위해서 교구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며, 우선 치명자성지 내 평화의 전당을 3월 중 착공하여 다목적 홀과 숙식, 연수가 가능한 시설을 구비하고, 동정 부부의 순교·사랑·생명의 정신을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교육문화관을 건립하여 평신도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사목 구조의 변화를 통해 도농을 연계하는 지구사목 강화를 위해 기존 9개 지구를 6개 지구로 개편하는 등 새로운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는 데 필요한 외적인 틀 마련에 교구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내적으로는 교구민들이 올 한 해 성경 말씀에 초점을 두어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며 성경을 읽는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김 주교는 “성경 안에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발견하려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만남에 초점을 두고 성경을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경 읽기에 대한 의무적인 부담과 실천하지 못하는 두려움으로 성경을 멀리하는 우를 범하지 말자.”라고 당부하였다.

총회에서는 2018년도 사업보고와 사업결산, 감사보고, 2019년도 사업계획과 사업예산 심의, 회칙개정 등이 이루어졌다. 특별히 2019년도에는 해외 빈민 돕기, 남북통일시대를 향한 평화의 사도 양성 프로그램 운영, 답게 살기 운동의 지속적 전개, 전주교구 내 전역에 걸친 순례길 발굴 정비 및 도보순례의 다양화, 쓰레기 분리수거 등의 다양한 사업을 실천하기 위해 평단협 부회장을 팀장으로 하는 주요 사업 실천을 위한 TF팀 운영방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세계 가난한 이의 날’ 관련 시설 방문 격려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고용삼)는 지난 2018년 11월 19일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을 맞아 문창우 주교와 함께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이 머물고 있는 시설을 찾아 대화를 나누고 애로를 들으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보냈다.

이번에는 중증 발달 장애 시설인 ‘다솜 발달 장애인 대안학교’와 농촌지역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 주력하고 있는 ‘동부사회 복지관’, 지적 장애를 가진 여성들의 가정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살레시오의 집’ 등을 찾아갔다. 앞으로도 평협 주관 하에 지속성을 갖고 가난한 이들을 찾아 위로 격려하는 사업들을 전개하기로 했다.

● 연말 도내 경비부서 위문 격려



제주평협에서는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도내 해안경비를 전담하고 있는 부서를 방문하여 대원들의 노고를 위로, 격려해 오고 있다. 금년에도 평협 회장과 임원 다수가 지난 2018년 12월 26일 제주 경찰청 소속 해안 경비단을 찾아 간식과 피자과 통닭 등 2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함으로써 경비 업무에 노고가 많은 대원들의 사기진작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다.

또한 시내 외곽에 위치해 있다 보니 대원들에게 선교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정기적으로 사제가 방문하여 인성교육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 탈핵 전국 순례단과 걷기행사 참가

탈핵의 필요성을 전국적으로 알려 나가고 있는 순례단이 지난 1월 21일 한림성당에서 정난주성당까지 23km를 도보 순례하며 제주지역에 탈핵의 필요성을 알렸다.

제주평협에서도 강우일 주교와 문창우 주교를 비롯한 평협 임원진, 그리고 여성연합회 등 20여 명이 함께 걸으며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걷는 시간 내내 도민들을 만나며 전단지 전달하고, 주차 차량에 홍보물을 부착하는 등 탈핵의 필요성을 알리는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종착지에 모여서는 역할에 대한 사후 평가 모임도 가졌다.

● 평협 1/4분기 상임위원회 개최

제주평협은 지난 2월 2일 가톨릭회관 2층 회의실에서 2019년도 첫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반성과 개선점을 논의했다.

또한 정기총회를 앞둔 시점에서 지난해 사업 결산과 새로운 사업 계획 확정 및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 평협을 알차게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아울러 앞으로 전개될 각종 사업과 행사에도 전 임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자는 데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마리아사업회(포콜라레운동)

● 포콜라레, ‘한국 · 홍콩 · 대만 합동 남녀 3젠 중고생 대회’ – ‘성령의 음성에 따라’



한국 포콜라레운동은 지난 1월 25~27일 경기도 의왕시 마리아폴리센터에서 <성령>을 주제로 ‘한국 · 홍콩 · 대만 합동 남녀 3젠 중고생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세 나라의 포콜라레운동의 중고생들과 이들의 양성을 돕는 보조자 등 총 100여 명이 참가했고, 나라별로는 홍콩 14명, 대만 6명, 한국 80여 명이 처음으로 함께했다.



묵상과 성체조배, 경험담, 워크숍과 축제 등으로 이어진 이번 대회는 3국의 중고생들이 성령에 대해 알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젠(gen)은 ‘새로운 세대’를 뜻하는 이탈리아어 ‘generazione nuova’의 약칭이고, 3젠(gen)은 포콜라레운동에 속한 청소년들을 뜻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서울과 대구 등 4곳에서 중고생 3젠 모임이 열리고 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한 대만 청소년은 “공부 스트레스로 우울하여 자살까지 생각했었지만, 이번 모임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았고, 성령의 음성을 잘 들어보아줬다고 생각했다.”라고 소감을 남기기도 했다.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

●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사랑합시다’

2019년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사랑합시다’라는 지표 아래 (재)바보의나눔과 연대하여 전국 11개 교구에서 신청한 ‘고독하고 소외된 작은 이’ 22명을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운동’을 실시하였다. 이와 동시에 ‘고독사 예방운동’ 위원회 출범식을 하였다. 위원장은 조순희(소피아)이며,

위원 4명이 함께한다.

지난 1월 27일에는 2018년 결산과 2019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집행위 임원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는 임원 전원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 끝에 심의를 마쳤다.

한국이사회는 오는 3월 9일 제37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홍보대사로 위촉된 방송인 박철(라우렌시오) 씨의 위촉식이 있을 예정이다. 지난 한 해 수고한 모든 빈첸시오 안들은 이웃사랑의 실천적 방법을 모색할 것이고, 세상의 가난한 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음과 귀를 여는 정기총회가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할 것이다.

전국가톨릭경제인협의회

● 2018년 전국가톨릭경제인협의회 피정

전국가톨릭경제인협의회(회장 윤대인, 담당사제 임인섭)는 협의회 산하 7개 교구 총 7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11월 16~17일 인천교구 갑곶순교성지 50주년 영성센터에서 2018년 피정을 실시하였다. 이날 조명연 갑곶순교성지 담당신부가 '내 안에서 행복을 만드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영성 강의를 했고, 인천교구 장 정신철 주교의 주례로 미사가 봉헌되었다.

● 2019년 전국가톨릭경제인협의회 총회



전국가톨릭경제인협의회는 2월 8~9일 의정부교구 파주 민족화해센터에서 2019년 총회를 실시하였다. 총

회에는 협의회 산하 7개 교구 회원 71명이 참석했다.

의정부교구장 이기현 주교는 미사 강론에서 “감보 디아에 파견된 선교사들의 나누는 마음과 실천하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알려주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라며 참행복을 누리기를 당부했다. 다음 날에는 오두산 통일전망대에 둘러 북한 땅을 바라보며 통일을 기원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국가톨릭성령새신봉사자협의회

● 2019년도 정기총회 열고 예산안 승인 및 임원진 구성



한국가톨릭성령새신봉사자협의회(회장 윤영수, 담당사제 손광배)는 지난 1월 20일 서울대교구 가톨릭회관 2층 강당에서 2019년도 정기총회를 열었다.

전국 각 교구에서 37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2018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이 있었으며, 2019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승인했다.

‘충실한 성령 안의 생활’을 2019년도 활동 목표로 정한 한국가톨릭성령새신봉사자협의회는 “우리 모두가 성령새신 기도 공동체 안에서 익힌 ‘성령 안의 생활’을 통하여 이웃에 봉사하고, 올바른 영성생활을 하며 ‘하느님 마음에 드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윤영수(대구대교구) 회장을 재선임

했다. 또한 윤요섭, 신호원, 최경숙(이상 부회장), 홍택훈, 문호(이상 감사)등 새 임원진을 구성했다.

한편 한국가톨릭성령새신봉사자협의회 전국 사제단은 인천교구 손광배 신부를 2년 임기의 대표 담당사제로 선임했다.

한국가톨릭노동장년회 전국협의회

● 한국가톨릭노동장년회 전국협의회 정기총회



한국가톨릭노동장년회 전국협의회(CWM) 정기총회가 1월 27일 노량진 가톨릭 노동청년회(YCW) 본부에서 열렸다.

총회에서는 2018년도 사업보고 및 재정보고, 감사보고가 있었으며 2019년도 사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결정되지 못한 안건에 대해서는 3월에 있는 전국 대표자 회의에서 좀 더 상세하게 논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는 2년 동안 활동했던 임원진들의 인사와 함께 앞으로 2년 동안 새롭게 활동할 회장 및 임원 선출이 있었다. 참가자들은 그동안 수고한 임원들과 앞으로 활동할 새로운 임원진들에게 큰 박수를 보냈다. 새로운 변화의 기대와 함께 그동안 함께해 온 정수용 신부도 새로운 소임지로 이동하게 되었다.

한국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

● 제36차 정기총회 및 전국 회장단 피정 개최



한국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회장 양지수, 담당사제 김용태)는 지난 2018년 12월 12~13일 서울 한남동 쏠벤두알 피정의 집에서 각 교구 시각장애인선교회 회장단과 봉사자 등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6차 정기총회와 회장단 피정을 개최하였다.

12일에는 나종천 전임 회장의 ‘시각장애인선교회의 선교 영성’이라는 주제강의와 그룹토의, 회장단 회의가 진행되었고, 13일에는 총회에서 사업 및 예산안 승인 절차가 있었다.

특히 첫날 주제강의에 이어진 그룹토의는 각 선교회가 가진 현안과 고민들을 진지하게 나누며 서로 조언과 격려를 얻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시각장애인선교회의 소명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며 1박 2일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 제8차 간호수도자 영성 연수



제8차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간호수도자 영성연수가 갈매곶성지와 공세리 피정의 집에서 1월 16~17일 1박 2일 동안 진행되었다. 전국에서 총 38명의 간호수도자가 참석하였다. 이번 연수에 참가한 간호수도자들은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함께 좀 쉬자”라는 주제로, 성지순례와 나눔, 미사 봉헌을 봉헌하고, 영성연수를 통해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간호수도자의 역할에 대해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에 대한 감사와 찬미를 올려드렸다.

• 제41회 정기대의원 총회, 제65회 전국이사회 및 피정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제41회 정기대의원 총회, 제65회 전국이사회 및 피정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마태 5,12)라는 주제로 서울 합정동 마리스타 교육관에서 2월 16~17일 1박 2일 동안 진행되었다.

이번 총회는 중앙이사회와 전국 14개 교구의 대의원 124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총회 일정 전 제65회 전국이사회가 개최되었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라는 프란치스코 교황님 말씀과 함께 말씀의 전례로 공식적인 총회 및 피정 일정이 시작되었다.



또한 박준양 신부의 ‘온전함을 향한 신학: 영적 돌봄과 전인적 돌봄을 위한 전망’이라는 주제의 피정 특강 들으면서 임상에서 영적 돌봄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심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17일은 절두산 성지순례로 아침을 시작했다. 오전에 대의원총회가 개최되었고, 총회 및 피정 일정을 마무리하며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지도사제인 이경상 신부의 주례로 파견미사를 봉헌하였다. 이번 정기대의원 총회와 피정은 한국가톨릭간호사 공동체의 나눔, 화합과 일치를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1922.5.8~2009.2.16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 선종 10주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김수환 추기경 선종 10주년 추모행사

행사

- 특강
[김수환 추기경 영성]
6월 4~25일(매주 화)
14~16시
서울 명동대성당 코스트홀

방송 프로그램

-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라디오 드라마 ‘바보, 김수환’]
매주(월~금) 8시 30~40분
17시 50분~18시(재방)
매주(주일) 8~9시(5부 연속 방송)

전시회·공모전

- 김수환 추기경 유품 전시회
2월 16일~6월 30일
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절두산)
- 김수환 추기경 선종 10주년 기념 생명나눔 · 생명존중 작품 공모전
포스터, 표어, 글짓기, UCC, 웹툰
5월 1일~9월 30일
한마음한몸운동본부(02-727-2270)
한국평협 사무국(02-777-2013)
- 김수환 추기경 선종 10주년 추모전
[그림습니다, 고맙습니다]
9월 4~10일
서울 명동 1898갤러리



실천운동

‘바보 김수환처럼, 그리스도인답게’

‘고마운 마음, 감사의 말’로 사랑합니다.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 선종 10주년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다짐을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 가톨릭평화신문

● 가정 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 주일 미사와 월 1회 가족미사, 성시간 참례
- 삼종기도, 식사 전·후 기도 생활화

● 생명 존중 나눔에 함께하겠습니다.

- 생명 나눔(장기, 사후 각막, 조혈모세포 기증, 헌혈)
- 생명 수호(태아 보호, 자살 예방, 호스피스)

● 이웃을 위한 나눔에 함께하겠습니다.

- 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
- 가진 것을 서로 나눔

●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 화해와 일치를 위해 기도(21시-주모경)
-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21시-평화의 기도)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Editor's Letter

올해는 기해박해 180주년입니다. 1791년에 윤지충이 모친상을 치른 후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제사를 지내지 않고 위패를 불태운 신해진산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천주교는 무부무군(無父無君)의 사학(邪學)으로 낙인찍히고 말았습니다. 이후 1801년 신유박해를 거쳐 1839년에 기해박해가 터졌습니다. 앵베르 주교, 모방 신부, 샤스탕 신부를 비롯하여 정하상, 유진길, 조신철, 남이관, 김계준, 최경환, 정정혜, 유대철, 민극가, 이문우 등등의 많은 교우들이 하느님을 증거하며 새남터와 서소문 등지에서 참혹하게 처형되었습니다. 그때 순교한 분들 중 67위가 성인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날의 수난을 기억하며, 신앙선조들의 견결한 믿음과 올곧은 삶을 되새깁니다.

또한 올해는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 10주기입니다. 한국의 첫 번째 추기경 서임 50주년이기도 합니다. 그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 가르침에 따라 가난한 교회, 현실에 동참하는 교회를 지향하였습니다. 군부독재의 암울하였던 시절에 불의와 부정에 맞섰고, 산업화에 따른 인간 소외의 시절에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의 편에 섰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명을 몸소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장례기간에 명동대성당을 찾은 조문객이 40만 명에 이르렀고, 장기 기증 서약이 확산되었던 일을 떠올리며, 그를 본받고 따르고자 하였던 열기를 되새깁니다.

이번 호에는 김수환 추기경을 추모하는 <특집>으로 '김수환 추기경과 나'를 실었습니다. 다음으로 신앙선조들의 삶을 통하여 오늘의 우리를 돌아보는 <나눔>, 그리고 오늘날 평신도의 복음적 삶을 다각도로 조망한 <만남> · <이야기> · <배움>을 마련하였습니다. 모쪼록 이 글들이 희생과 극기로써 신앙선조의 삶을 본받고 따르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는 단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태산과 같은 믿음을 타오르게 하는 불쏘시개 말입니다. 우리의 사후 10년 뒤, 180년 뒤의 후손들이 오늘의 우리를 신앙선조로 여길 수 있는 삶을 꿈꾸며...

편집장 김문태 힐라리오 올림



교구평협, 회원단체 소속

『평신도』 명예기자를 모집합니다.



한국평협에서는 계간 『평신도』와 함께할 명예기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 교구평협과 회원단체별로 한 명의 명예기자를 선정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기자는 앞으로 『평신도』에 관련된 각 교구와 단체의 소식과 사진자료 등을 정리해서

한국평협 사무국 ☎ 02)777-2013, FAX 778-7427, 전자우편 clak0723@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명예기자는 아름다운 자원봉사활동입니다.

명예기자 명단(2019년 3월 현재)

소속	이름	세례명	이메일 주소
서울평협	염지유	로사	clas@clas.or.kr
춘천평협	이정란	미카엘라	kino70@hanmail.net
대전평협	윤정분	아네스	tjclass@hanmail.net
인천평협	안영근	안토니오	kgph@caincheon.or.kr
수원평협	서덕희	미카엘라	pyonghyop@casuwon.or.kr
원주평협	백정현	임마누엘	obdo@obdo.co.kr
의정부평단협	김현채	바오로	pwrsave@naver.com
청주평협	이상철	방지거	howareyoulee@naver.com
마산평협	최명숙	안젤라	clacms@hanmail.net
안동평협	신춘덕	로사	s9581@hanmail.net
광주평협	정춘자	로사	jlosa1208@hanmail.net
전주평단협	유광용	대건 안드레아	teleto60@naver.com
제주평협	강수미	도미니카	enjoy7508@hanmail.net
구르실료한국협의회	황웅진	헨리코	hwjin70@naver.com
마리아사업회(포콜라레)	최석균	마태오	maongchoi@hanmail.net
성빈첸시오아바오로회한국이사회	김영철	마티아	ssvpk@hanmail.net
한국가톨릭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문호	토마스	younamedia@hanmail.net
한국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	김정현	도로테아	webmaster@blindmission.or.kr
한국가톨릭노동장년회전국협의회	서선미	로사리아	cmi1021@hanmail.net